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0년 9월호

리아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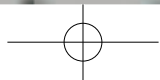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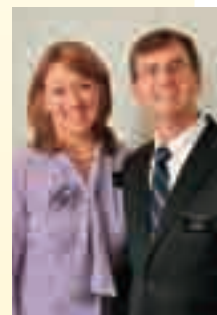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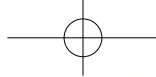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하며, 18쪽**

귀환 선교사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사항,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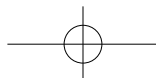
진리는 이기리, 48쪽

에머 스미스의 어린 시절, 58쪽





“저는 보상도, 명예도,
그밖에 세속적인
보수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만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이 사람들은 바로 연로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며 ……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아오게’ 하려고 조용히,
부지런히 돕는 훌륭한 경험
많은 형제 자매들 말입니다.” 켄트
디 왓슨 장로, “연로한 선교사”,
18쪽 참조.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월터 레인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 그림은 시편을 쓰는 다윗 왕을 그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환란 속에서 주님께 치유와 용서를 구하며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시편 23편 1~3절에서 따온 것이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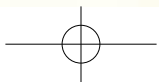
선교사, 하워드 포스트

“그리고 너희는 둘씩 짝이 되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팔 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나의 말을 선포할지니라.

또 너희는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며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장로, 제사와 교사는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 있는 물문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6~7, 12, 14)





리아호나, 2010년 9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물문경을 여러분의 지침서로 삼으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라는 책임

특집 기사

- 10 복음 의식에서 희망을 되찾다
엘리아스 마가보
우리 가족은 성전 의식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단합되었습니다.
- 18 연로한 선교사
켄트 디 왓슨 장로
타이완에서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의 이야기에서 선교 사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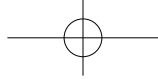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 22 단순한 선교 사업 지도서가 아닙니다
멜리사 메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영감 어린 도구는 모든 교회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 28 주님을 찾는 통가 성도들
조슈아 제이 퍼키
통가 후기 성도들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받는 축복을 안다.
- 34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가르치고 영감을 주십시오
줄리 비 벡
영감에 찬 지도자들은 와드나 지부의 필요에 맞게 상호부조회 모임을 조정할 수 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3 교회에서 봉사하며: 어린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니 베이커

- 14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가정으로 맞이하여
신시아 그린
- 16 우리의 믿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수족관에서 얻은 교훈
미네르바 지 하르크네스

표지
앞: 사진 삽화: 이현규
뒤: 사진 삽화: 이현규, 라우레니 아테마르
포체토, 루스 시푸스.



청년 성인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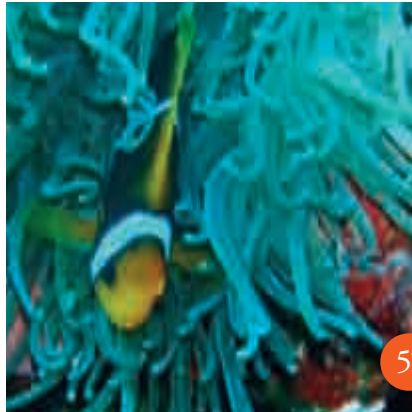
어린이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환
선교사들에게
엘 톰 페리 장로

45 내 삶의 복음: 기쁨을 갖기
위험이니라
안드레아 존스



51

46 해답을 찾아서

48 나는 어떻게 아는가: 진리는
이기리
올리버 메이올

51 우리들 공간

52 선교 임지에서: 신호등 앞에서의
기적
벤자민 헤이포드

54 준비하고 오세요

아담 시 올슨
코키에게 농구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무척 비슷한 일이다.

57 포스터: 굳게 붙드십시오



58

58 충실한 소녀 어머니

마크 스타커
에머 스미스가 소녀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보세요.

60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어디에 살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62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요

산드라 태너, 크리스티나 프랑코

64 우리들 이야기

65 특별한 증인: 신권 정원회란
무엇입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66 충실한 다니엘을 구하신 여호와

다이앤 엘 맹검
다니엘은 주님께 순종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68 가장 귀한 선물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선교사들은 소피의 가족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소피도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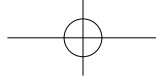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선물



54



2010년 9월호, 제47권, 제9호
리아호나 09289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엔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코 기무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너이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라트, 라렌 포터 곤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코, 조슈아 제이 파키, 제드 이 페라스, 랜 핀보로우, 리처드 엘 풀나,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펜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렐 듀셔
미술 책임자: 스킷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베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킴 핀스타머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킷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30호, 제47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문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10 Vol. 34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성인

“연로한 선교사”(18쪽), 켄트 디 왓슨 장로는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일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연로한 선교사들에 관한 기사를 썼다.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www.lds.org/csm/index.html(영어)을 방문한다.

“주님을 찾는 통가 성도들”(28쪽)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다면 www.liahona.lds.org에서 통가 후기 성도들의 사진을 더 볼 수 있다.



청소년

이번 호에 나오는 몇몇 기사에는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언급된다. 이 지도서는 인터넷 www.preachmygospel.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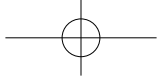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인터넷 www.liahona.lds.org에서 몇몇 어린이 활동을 찾아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기타 교회 자료는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몰몬경을

여러분의 지침서로 삼으십시오

우 리 모두는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를 때면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치실 구주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향을 알려 줄 선지자도 주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몰몬경을 번역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몰몬경은 본향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확실한 지침서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귀중한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¹

몰몬경에 실린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몇몇 가르침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구주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키우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구주를 따르겠다는 결의를 다지도록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도 나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교리로 가득합니다. 니파이후서 내용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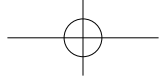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더라.”(니파이후서 31:10~11)

몰몬경에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려면 불의 침례로 성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는다고 배웁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또한 몰몬경에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베냐민 왕의 위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계명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속죄 권능으로 각자의 본성이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모사이야서 4:1~12 참조)

몰몬경에서 우리는 이생을 사는 동안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만큼 깨끗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본향으로 가는 길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낙담시키려 할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품오 명예 게시 그리스도 시아면 두이 © 2003 韓

물몬경을 단 몇 줄만 읽을 때에도, 그때마다 저는 물몬경이 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소망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물몬경을 단 몇 줄만 읽을 때에도, 그때마다 저는 물몬경이 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따라 본향에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향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간증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몬경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매일 물몬경을 깊이 음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이 참된 지침이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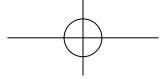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3쪽.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모 든 가르침에서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원천으로 사용하면, 증거를 해 줄 영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르침에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교리와 성약 11:21)이 더해진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51쪽)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말씀의 주요 부분과 조셉 스미스가 물몬경에 대해 말씀한 부분을 읽는다. 물몬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가족들이 이야기해 보게 한다.

“반원들이 경전에 나오는 원리들을 토론할 때, 그들은 개인 경전 학습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54쪽) 이 말씀에서 언급한 성구들을 읽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을 찾아 토론한다.



청소년

나만의 몰몬경

힐러리 홀브룩

2005년 8월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교회 회원들에게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으라고 권고하셨을 때, 나는 한 권을 완전히 읽겠다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알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경전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고 배워 왔다. 그래서 몰몬경을 읽으면서 여백에 그 구절의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적었다. 또한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은 밑줄을 그어 강조 표시를 했다.

경전 구절에 이름이 나오면 그 옆에 내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니파이후서 2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에 이제 [힐러리아], 나는 너희가 크신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바라노니.]” 몰몬경을 내 것으로 만들수록 매일 몰몬경 읽는 일이 더욱 신이 났다.



매일 몰몬경을 읽으면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또한 수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영의 속삭임도 따를 수 있었다. 그 해 마지막 밤에 마침내 몰몬경 읽기를 끝마쳤다.

그때 나는 다른 경전과 더불어 몰몬경 전체를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이 그렇게 해내고 싶다.

어린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길을 잃어서 집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길을 알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따라간다면 기쁠까요? 아이어링 회장은 몰몬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그림을 보세요. 몰몬경에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니파이후서 31장 10, 11, 20절을 읽으세요. 그런 다음 해당하는 절을 각 그림 밑에 써 넣으세요. 같은 절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



밝은 소망을 품는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원문: 사진: 쉐라; 크레디트: 스티브 크럼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라는 책임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모사이아서 26장에 기술된 세대처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조상의 전통을 믿지 않아 신앙에서 멀어진 백성이 되었으며, 그 후로도 그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라나는 세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원리들을 가르치는데, 이는 바로 가족 원리, 즉 자라나는 세대가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을 가르치며, 가족이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이며, 그렇게 그 일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와 지도자와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세대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곧 성전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교리의 핵심 요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 본분과 아버지 본분은 영원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각자는 남성으로서든 여성으로서든 이 계획에 대해 절반씩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의 모범을 보고 큰 소망과 이해를 얻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가족의 참뜻에 대해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을 봅니다.

줄리 비 백,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구에서

잠언 22:6; 에베소서 6:4; 이노스서 1:1; 앨마서 53:20~21; 56:47; 57:27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자매들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사용하여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자매들과 선언문 사본을 나누고 핵심 교리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들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한다.
2. 나는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만한 와드나 지부 회원들, 가족,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손을 내민다.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1995년 9월 23일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러우며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입증된 행동 표준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소리가 있습니다.”¹ 그런 후 헝클리 회장은 자매들과 교회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소개했다.

그 후 몇 년간 이 예언적인 선언문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선언문에서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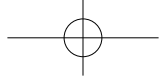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후기 성도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가족에 대한 신념을 쌓았으며, 그 교훈대로 생활할 때 가족과 가정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선언문의 가르침을 고수할 수 있다.

주

1. 고든 비 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8~99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연차 대회와 영감

연 차 대회 연사들이 말씀 주제를 받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연사들은 말씀 주제를 받지도, 주제를 미리 나누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훌륭합니다. 주님은 각 연사들의 간절한 수고를 취하시어 계시와 권능으로 가득한 영적인 교향곡을 지휘하십니다. 어떤 주제는 반복되기도 하고, 한 원리가 다른 원리를 강화하기도 하며, 예언적인 경고와 희망찬 약속도 주어집니다. 그 신성한 조화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08쪽)

세계 교회 역사 탐방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 10주년을 기념하며

2000년 10월 8일,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이 헌납한 컨퍼런스 센터와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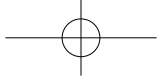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 처음 사용된 날: 2000년 4월 1일과 2일에 열린 제170차 연차 대회
- 헌납 후 이곳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사람 수: 4,577차례에 걸쳐 690만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 건물을 둘러본 방문자 수: 480만 명
- 건물을 둘러본 고위 관리: 5,500명
- 이곳에서 열린 음악 공연 횟수(음악과 진리의 말씀 포함): 311회
- 이곳에서 열린 성탄절 관련 행사: 열일곱 종류의 행사가 49차례에 걸쳐 열렸다.
-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 전시회: 선지자의 흠, 아놀드 프리버그 미술관, 교회 국제 미술 대회 출품작



일정

기억하세요! 9월 25일에는 상호부조회 총회가, 10월 2일과 3일에는 연차 대회가 열립니다. 방송 시간과 시청 지역은 신권 지도자나 conference.lds.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대회를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컨퍼런스 센터 연단

컨퍼런스 센터 연단에는 독특한 사연이 있다. 다음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저는 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여름이 되면 농장에서 생활했습니다. 과일 농장이었는데 매년 이 계절이 돌아오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2, 3년 간 그곳을 떠나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봄철마다 …… 나무를 심었습니다.

36년여 전에는 검은 호두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좁은 곳에 심어 놔더니, 나무는 햇빛을 쬐려고 곧고 높달랴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일년 전에 어떤 이유로 그 나무는 죽고 말았습니다. 호두나무는 귀한 가구용 목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임으로 봉사하기 전에 견목 제재업을 하셨던 칠십인 정원회의 벤 벅크스 형제님을 불렀습니다. 벅크스 형제님은 제재업에 종사하는 두 아들과 같이 와서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한 명은 현재 감독이고 다른 한 명은 최근에 감독에서 해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살펴보고 난 뒤에 그들은 목재가 단단하고 훌륭하며 아름답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그 나무로 컨퍼런스 센터 연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흥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서 두 개의 거대한 통나무로 절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연 건조를 한 후 가마 건조를 하는 긴 건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통나무는 유타 주 세일럼에 있는 한 제재소에서 판자로 켜졌습니다. 판자들은 펠터 목공장으로 옮겨졌으며, 숙련된 기술자들이 그 목재로 이 멋진 연단을 설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작품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연단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장인들의 솜씨가 돋보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아이들이 뛰놀며 자란 집 뒤뜰에서 키운, 바로 그 나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저는 검은 호두나무 한두 그루를 또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다 자라기 전에 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나무가 다 자라고 이 아름다운 연단이 남아지면 아마 그 목재로 교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인류의 구속주에 대한 간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훌륭한 건물에 저의 조그마한 손길이 머물 수 있게 해주신 벅크스 장로님과 그분의 자제들인 벤과 브래들리, 그리고 이 연단을 설계하고 제작한 기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온 세상에 간증으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6쪽에서 발췌.



저녁식사 시간? 배우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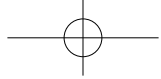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저녁식사 시간을 배우는 시간으로 바꿔 보세요! 식탁에 교회 교과 과정 자료 몇 가지만 올려 두면 된답니다. 저희 집은 종종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소녀용 지도서,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활용합니다. 물론 경전도 늘 곁에 둡니다.

때때로 몇 단락을 읽고 토론도 하는데, 참조 성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한번은 식사를 하면서 신앙개조 제5조를 암기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이따금 이런 자료로 식탁을 차리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에도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세레나 게들라만, 캐나다 앨버타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소녀용 지도서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책자도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물품은 후기 성도 배부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솔트레이크 배부센터, 1-800-537-5971로 전화 주문할 수 있다.



복음 의식에서 희망을 되찾다

전화 통화에서 아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삼 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아스 마가보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아내인 모니나를 만나
결혼한 곳은 필리핀입니다. 아들 마크가 태어난
곳도 필리핀인데, 1990년대 중반에 저희 가족은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 사이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이판에서 저희는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가끔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말끔한 차림을 한 두
젊은이가 주변을 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후기 성도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다른 교회로 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 쪽으로 오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곧장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뛰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친구인 멜 에스피노자와 솔레다드 에스피노자가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저는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가족에게 선교사들을 만나
보라고 권유했고, 저희는 거의 호기심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2007년 8월, 첫 만남에서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는 무언가 강렬한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훗날 저는 그때 제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고무되고 고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면서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할 무렵, 아내는 기력을 잃고 몸
전체에 이상한 돌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전에
없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 보았지만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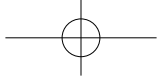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검사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내는
치료가 더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12월에
아내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하며 침대 아들을 보살펴야 했기에 사이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는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저에게 사이판으로 돌아오면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몇 토론을
놓치겠지만 선교사들을 계속 만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아들 마크와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치료 상황과 복음에 대해 배운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아내는 통증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2008년 1월
초에 아내를 만나려고 비행기 표를 샀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이판에 돌아갈 것이 확실하니 굳이 돈을
들여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저를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아내는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백혈병 때문이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필리핀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사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심화: 비온 지평선



저는 깊은 비통에 잠겨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유독 힘들었던 어느 날, 문득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에게 가르친 내용을 마크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시요. 영의 세계 말이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내가 복음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생이나 다음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내가 침례와 같은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내가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 받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비록 지상에서 사는 동안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희망을 잃도록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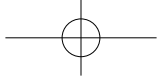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 마크와 저는 몇 가지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후 저는 직장을 잃었고, 아내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저는 아내가 없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견뎌 내며 우리는 새로 찾은 신앙에서 희망을 찾고 2008년 4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달 안에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병원비도 다 지불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저희 지부에서 필리핀 마닐라 성전을 방문할 때 함께 가서 가족 인봉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수입을 모두 모으고 영적으로 준비한 끝에 마크와 저는 지부 회원들과 함께 2009년 5월에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힘을 북돋워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대적이 휘두르는

선교사 토론을 듣고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 고조되고 고무되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러한 위안이 그토록 절실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파괴적인 영향력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가기 하루 전날,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예상치 않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여권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북음으로 인도한 에스피노자 가족은 성전에 가기 일주일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지부 회장단으로 봉사하던 한 형제는 처음으로 성전에 갈 예정이었지만 성전에 가기 삼 일 전에 급작스런 병으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북돋아 주셨고, 지부에서 총 42명이 성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마크를 포함한 16명은 그날 처음으로 성전에 참석했습니다.

2009년 5월 13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 도착하자, 아내의 죽음이 안겨 준 중압감과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복잡한 거리와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전에서의 경험은 더 의미 있고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부 회원들은 오전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했습니다. 침례식을 지켜보면서, 일 년 반 전에 침례를 받고 싶어하던 아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날 한 친구가 제 아내를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아들과 저는 영원히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그 소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성전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오후에 인봉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수년 전에 결혼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신권 권세로 성전에서 맺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내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가족이 성전에서 영원으로 인봉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닐라 성전 인봉실에 들어서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로 북음이 가져오는 축복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가치를 몸소 느꼈습니다. 아들과 제가 가족 인봉을 받기 위해 제단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아내도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감지되는 모든 느낌들이 아내가 그곳에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어린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니 베이커



초 등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경건하게 앉아서 배우는 일을 힘들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도자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다루고 교사들이 반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종종 경건하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에게 책임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¹ 책임을 맡으면 교회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부름을 주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지도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어린 아이까지도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 함께 나누는 시간에 동생들을 돕게 한다.
- 일찍 온 어린이들은 문 앞에 서서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맞이하게 한다.
- 큰 아이 한 명에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긴다.
- 큰 아이 몇 명에게 도서실에서 분필이나 지우개 또는 크레용 등을 가져와 달라고 한다.
- 피아노를 치는 어린이에게 모임 시작 전이나 후에 찬송가를 연주해 달라고

한다.

- 방문자나 새로운 회원 곁에 앉아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친한 사이인 두 어린이를 지명한다.
- 지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 몇몇 어린이에게 의자를 펴고 접는 임무를 준다.
- 와드나 지부에 새로 온 어린이를 가족과 함께 방문해 달라고 한다.
- 그림을 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 공과와 관련된 간단한 그림을 칠판에 그려 달라고 한다.
- 반원 몇 명을 선발하여 새로 배우는 노래에 어울리는 율동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 열한 살 된 어린이가 초등학교 활동의 날을 계획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이 맡은 책임이 크든 작든, 그들이 봉사한 부분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방법을 청남 청년 조직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보람됩니다. ■

주

1. 고든 비 힝클리 회장, "Converts and Young Men", *Ensign*, 1997년 5월호, 4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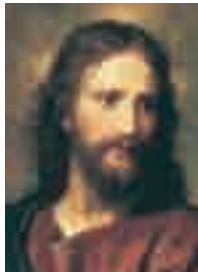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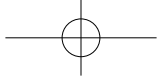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진정으로 중요한 것

칠십인인 케네스 존슨 장로는 다섯 살 난 아들이 집의 외부를



페인트칠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준 낚은 셔츠는 거의 바닥에 끌릴 정도로 커서 아들의 몸을 완전히 덮었고, 소매도 여러 번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문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쪽을 칠하는 동안 아들은 바닥 부분을 칠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리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고르게 하지 못했고 기포도 생겼습니다. 아들이 붓에 페인트를 묻히려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저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닥 쪽 페인트칠을 매끄럽게 해 놓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 일하는 척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페인트칠을 완벽히 하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들은 정말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정문 앞에 다가설 때마다 저는 독특한 무늬로 칠해진 페인트를 보며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We All Have a Father in Whom We Can Trust", *Ensign*, 1994년 5월호, 30쪽에서 발췌.



그리스도를 가정으로 맞이하여

신시아 그린

몇 년 전에 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암송하는 한 워드 청녀를 보고서 나도 그 내용을 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새벽에 달리기를 할 때마다 작은 복사본을 들고 나갔다. 혼자인데다 방해 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생각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암송 목표도 달성했다.

“해냈다”는 성취감도 좋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 사명에 대해 더 자주 생각했고 남편과 자녀들을 더 큰 인내심과 사랑으로 대했으며 모든 일에서 더 큰 평안과 행복을 느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러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리하이처럼 우리 가족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다.(니파이전서 8:12 참조)

그래서 자녀들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린데, 원문은 꽤 길었다.(말이가 열한 살이었다.) 하지만 내겐 소망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 자주 기도하고 숙고하자 영이 가족들을 가르칠 방법을 알려 주었다.

예전에 교회 잡지에 나온 그림들을 오려서 모아 둔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를 찾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각 소절과 어울리는 그림을 골라냈다. 예를 들어,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부분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모세와 대화하시는 여호와 그림을 찾았다. 다음 소절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서 계시는 그림을 사용하기로 정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그림을 찾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구절들과 적절하게 짝을 지었다.

12월은 가족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안성맞춤인 듯했다. 자녀들은 신나 하면서 가족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푹 빠져들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외우는 소절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부엌에 붙였다. 낮 동안 그림 옆을 지나면서 해당 소절을 읊조리는 아이들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온 가족이 벽에 붙은 그림에 해당하는 소절을 다 외우면 새로운 그림으로 대체하고 새 구절을 외웠다.

우리는 각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정의 밤 공과 시간에는 구주에 관한 이야기와 가르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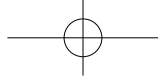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꽃피웠다. 남편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을 가르쳤고,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아이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 기도도 더욱 의미 있어졌다. 우리 가정은 영으로 충만해졌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니파이후서 25:26)라고 기록한 니파이의 마음에 공감했다. 가정에 더 큰 평안이 깃들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이 쏟아졌다. 예를 들어, 네 살배기 막내인 조셉을 위해 단어 몇 개를 쉬운 말로 바꿔 주려고 했는데 조셉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외우겠다고 고집했다. 이런 노력은 어느 안식일, 교회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우리 가족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외우는 데 사용한 그림 중에 겿세마네 동산에 계신 구주 그림이 성찬식 순서 표지에 나왔다. 조셉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보세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부분이예요.”

한 안식일에는 교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특히 성찬을 드는 동안 몹시 산만했다. 다음날 저녁, 우리는 가정의 밤 시간에 성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찬을 드는

원문: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권리의 세부, 헤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판; 오른쪽 삽화: 마이클 티람



목적과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열 살 난 세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글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루는 조셉이 잠투정을 심하게 부렸다. 조셉은 말을 듣지 않고 짜증만 냈다. 나는 조셉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몇 부분을 들려달라고 했다. 조셉이 암송을 시작하자 방 안으로 영이 깃드는 것을 느꼈다. 조셉은 흥분을 가라앉혔고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또 다시 조셉이 말썽을 피우던 어느 날 밤, 같은 방법을 다시 시도해 보았다. 이번에는 조셉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싫어요! 행복해지기 싫어요!” 어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버린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구주를 좀 더 가까이 느꼈다.

우리 가족은 다음 해 부활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 외우는 일을 마쳤다.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멋진 녀달이었다. 비록 그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이 가족 개개인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리란 사실을 나는 안다.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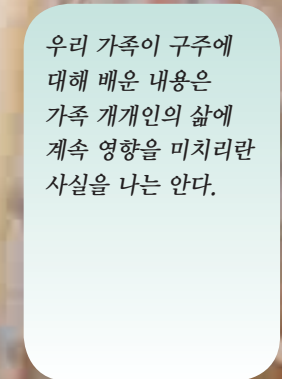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안다. 그분들의 일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감사하다. 신성한 아들이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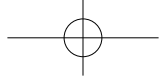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닮으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주

1. “살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사도들의 간증”,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우리 가족이 구주에 대해 배운 내용은 가족 개개인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리란 사실을 나는 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오셨을 때 이성과 다음 생애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와 사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누가복음 8:1)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침례와 같은 의식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3:5 참조)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 온 세상에 전파[될]”(마태복음 24:14)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게]”(마가복음 3:14)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나누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교리와 성약 133:37)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복음을 나누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간결하게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에게 그분께로 나아오라고 권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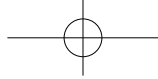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5~7장 참조)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도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요한복음 4:4~42 참조) 또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장 참조)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과 현재로서는 복음을 나눌 수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을 위해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쪽.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표현한다.



2.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한다.



3. 교회 모임과 활동, 봉사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4.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몬경이나 리아호나를 선물한다.



5. 인터넷을 복음을 나누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간증을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Mormon.org와 같은 교회 웹사이트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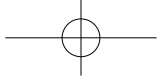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6. 청년과 청년, 은퇴한 성인들은 선교 사업을 준비한다.



7. 친구와 이웃에게 선교사 토론을 들어 보도록 권유한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4~15)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년), 189~195쪽과 신앙에 충실함(2004년), 77~78쪽을 참조한다.



켄트 디 왓슨 장로
칠십인

연로한 선교사

저는 45년 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지역에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 회장단 일원이 되어 또다시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극동 남부 선교부였으나 지금은 25개 선교부로 나뉘었습니다. 그때는 몇 안 되는 지부에, 회원도 몇 명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회원이 75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곳곳에 집회소가 들어섰으며, 아시아 회원들에게도 성전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보며, 저는 보상도, 명예도, 그밖에 세속적인 보수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만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이 사람들은 바로 연로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며 ……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아오게”(교리와 성약 1:30) 하려고 조용히, 부지런히 돕는 훌륭하고 경험 많은 형제 자매들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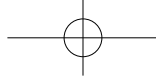
그들은 경험, 신앙, 간증, 사랑으로, 울란바토르에서 뉴델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포도원에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일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가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미가 5:7)고 묘사한 사람들입니다.

연로한 선교사 중에는 부름 받은 장소를 들고 놀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선지자 요나처럼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으며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지도 않았습니다.(요나 1:3, 17) 오히려 자신의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태복음 4:20)

연로한 선교사들이 하는 다양한 임무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기,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가르치기,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기, 영구 교육 기금 집행하기, 지부에서 봉사하기(교육, 훈련, 활동화, 나누기),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용 상태를 개선하도록 조언하고 돕기, 자신의 전문 분야(법률, 재무, 공학 기술, 교육, 건강관리)에서 일하기, 인도주의 봉사 조정하기, 홍수,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습니다.

연로한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에서 봉사합니다.

꼭 필요한 요소

“우리는 남미에서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며 교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과도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교회와 공조하여 수많은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일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아원, 병원, 교도소, 진료소, 불우한 사람들, 장애인,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사회 사업 단체와 함께 일하며 보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처럼 복음 토론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경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런 도움이 나온 진정한 근원을 깨달으면서 신앙이 커지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그들이 쌓은 방대한 경험으로 선교 사업에 꼭 필요한 요소를 보태 줍니다.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부들에게도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찰스 이 카트밀, 줄리아 카트밀, 미국 아이다호 주



사진 삽화: 스티브 번데슨, 이현규, 웰던 시 앤더슨, 코디 벨, 파멜 바로우, 데이비드 스토키



우리는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헌신적인 종들이 수록된 긴 명단 가운데는 이 사업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부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교부에 계신 부부 선교사들을 우리는 무척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0쪽.

지진, 기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펼치는 구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새로운 회원을 찾고, 가르치고 침례 주는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필 프랑센 장로와 브렌다 프랑센 자매도 그런 일을 하는 부부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타이완 가오슝에서 봉사했습니다. 다른 책임과 더불어 프랑센 장로는 선교부 회장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랑센 장로 부부와 함께 짧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여러분은 많은 부부 선교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계획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프랑센 자매: “저희는 아이들이 크면 선교사로 봉사하자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때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무슨 봉사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았어요. 여러 번 논의를 한 끝에 프랑센 장로님이 선택을 주님께 맡기자고 제안했죠.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지역에 다시 오게 되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프랑센 장로: “44년 만에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전세 건물에 작은 지부가 전부였던 곳에 이제는 아름다운 스테이크 센터가 있습니다. 당시에 알고 지내던 여덟 살짜리 소년은 이제 헌신적인 스테이크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발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프랑센 자매와 저는 사람들이 간증을 얻거나 강화하도록 도우면서 매일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장로님이 효과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프랑센 장로: “저희는 재능과 경험을 살려 일해 왔고, 저희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잊어 버렸던 중국어도 다시 많이 배웠습니다. 프랑센 자매는 중국어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우편물을 보낼 때 이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으니 노쇠한 뒤에도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프랑센 자매: “아이들과 손자손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눈부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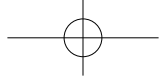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발달한 과학기술로 나이 든 선교사들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는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가족들을 보고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적어도 손자손녀가 네 명은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안아 보지는 못하겠지만 각각 태어나자마자 사진과 비디오에 담겨서 우리 손에 전해질 것입니다. 선교 사업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프랑센 장로: “사실 선교 사업을 나오면서 가족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젊은 선교사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선교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젊은 선교사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신이 납니다. 저희는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선교사들도 저희에게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귀환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나눈 경험을 들려주면 즐겁지 않으시던가요? 저희는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선교사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프랑센 자매: “고향인 애리조나를 떠나 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도 선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절친한 제 친구들은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딸과 사위도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친구 한 명이 최근에 침례도 받았습시다. 봉사를 할수록 축복도 더



오른쪽: 첫 번째 사진 세 장은 프랑센 부부 제공; 멕시코시티 상전 사진: 필립 시 앤더슨; 사진 촬영: 라우레노 아테미르 포체토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 빛을 갠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취를 맞보고 계십니까?

프랑센 장로: “선교 사업은 결코 지루하지가 않아요! 매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이 기다립니다. 저희는 사무실에서 하는 일 외에도 토요일 아침에는 영어반을 가르치고 일요일 아침에는 복음 교리반을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귀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영어반을 가르칩니다. 또한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일에도 참여합니다. 봉사하는 모든 기회는 복음을 가르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집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려고 생각하는 부부들에게 해 줄 조언이 있습니까?

프랑센 자매: “제가 가장 두려워한 점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교 사업을 하면서 건강을 축복받았어요. 선교사 일정은 건강에 좋거든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운동하고, 또 영양이 있는 식사를 하죠.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센 장로: “때때로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면 웃음이 납니다. 희생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만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프랑센 장로 부부가 나누는 경험은 아시아 곳곳에서 봉사하는 다른 연로한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견해입니다. 최근에 한 부부 선교사는 성탄 절기를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을 한 달 일찍 마쳐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탄절에 자녀와 손자손녀들과 함께 재회하게 되자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픈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어느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그 부부는 선교 임지에서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연로한 선교사들을 존경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필요한 곳에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를 희미하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아오게 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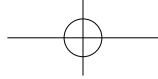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www.lds.org/csm/index.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왼쪽부터: 프랑센 장로 부부와 그들의 구역 선교사들; 젊은 장로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프랑센 장로;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는 프랑센 자매; 오르티즈 부부가 봉사한 멕시코시티 성전(아래 참조); 브라질에서 교회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을 돕도록 부름 받은 로페스 장로 부부.

봉사하는 축복

“**제** 아내와 저는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하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종종 저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영을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신앙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업을 하며 그분께 봉사했기 때문에 신앙과 간증도 커졌습니다.”

페드로 코르도바 오르티즈, 멕시코 아파스칼리엔테스



단순한 선교 사업 지도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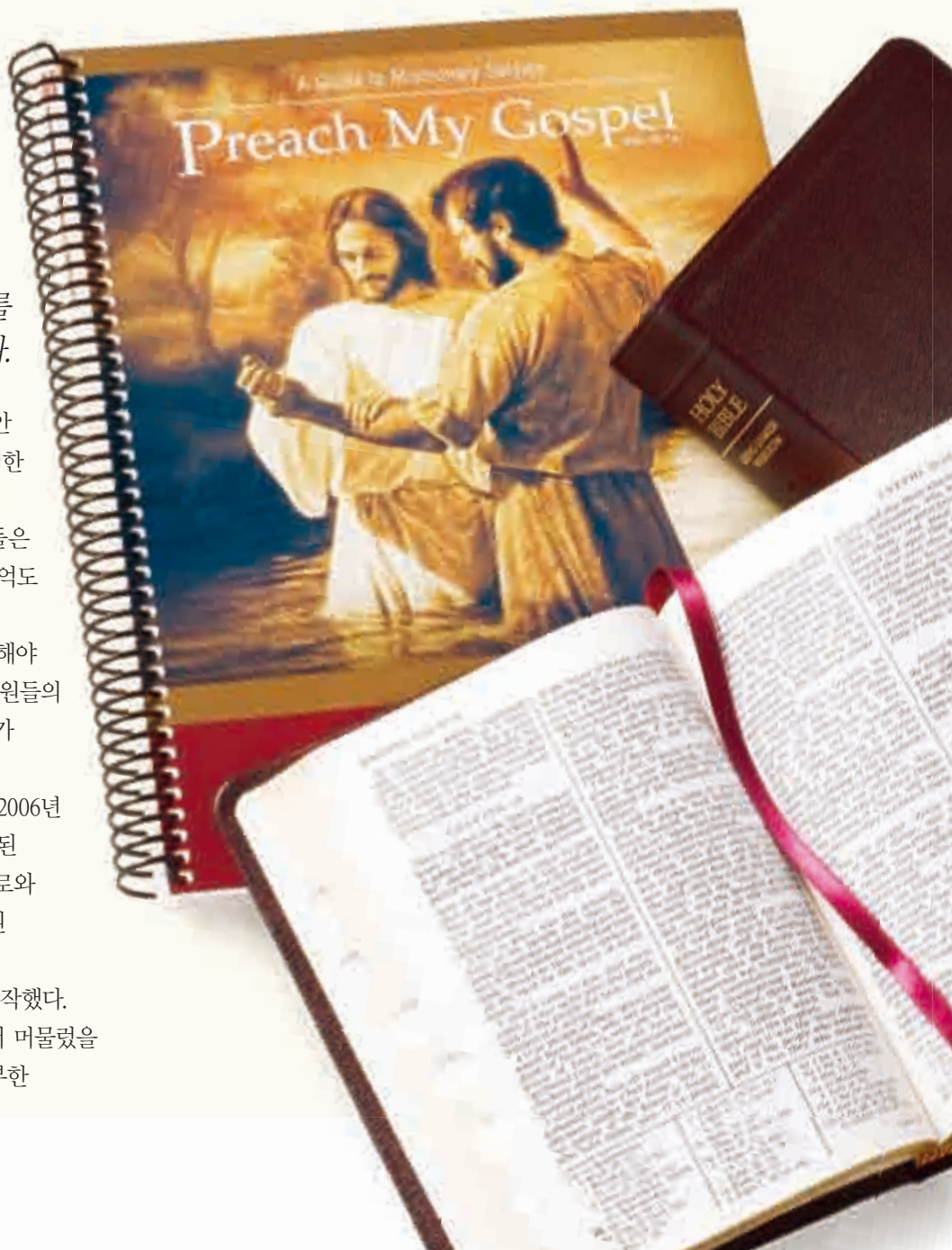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혼자서 복음을 공부할 때,
가정에서, 일요일 공과에서,
그리고 물론 선교 사업에서,
매사추세츠 힝엄 스테이크
회원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크리스 아이비는 거의 일 년 동안
구도자라고는 단 한 명도 참석한
적이 없는 프랑스의 한 작은
지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곳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열린 침례식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하지 못했다.

아이비 장로는 동반자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기도를 드렸다. 그때 지부 회원들의
각 가정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도서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06년
초, 당시는 이 “선교 사업 지도서”가 발매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다. 아이비 장로와
동반자는 그 느낌에 따라 이 책을 여러 권
주문하여 각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 후로 지부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비 장로는 그 지부에 겨우 두 달간 더 머물렀을
뿐이었지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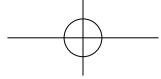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사진 촬영: 앨리스 메릴

청소년과 성인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아이비는 이렇게 회고한다. “회원들은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했고, 복음을 나누고자 했으며,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교 활동이 일어났죠.”

회원들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들과 복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선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들이 지부 활동에 참석하면 다른 회원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래서 아이비 장로와 동반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것보다 복음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한 구도자가 이후에 침례를 받았다.

아이비는 이렇게 말한다. “때때로 교회 회원들은 선교 사업을 선교사들만 하는 일로 잘못 인식하죠. 하지만 이 지부 회원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하여 스스로 준비가 되자, 가르칠 사람을 찾는 역할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회원들에게 선교사의 영을 불어 넣는 데 기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메드웨이로 귀환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이비는 여전히 매일 경전 공부에 앞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한다. “이 지도서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선교사가 되고 복음도 더 잘 가르치게 되었어요.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제게 힘을 실어 줍니다.”

매사추세츠 힝엄 스테이크에서 전임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영향력을 발견한 회원은 아이비만이 아니다. 힝엄 스테이크 회원 선교사들은 분명 이 지도서는 전임 선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사람의 삶을



“이 지부 회원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하여 스스로 준비가 되자, 가르칠 사람을 찾는 역할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회원들에게 선교사의 영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습니다.”

크리스 아이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덕분에 알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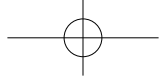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제임스 세터버그

축복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선교부에서 집으로 가져온 보물

제임스 세터버그 역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사 지도서로 갖 사용되기 시작한 무렵에 선교사로 봉사했다. 제임스가 2005년에 텍사스 휴스턴 동 선교부에 도착하기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선교사들은 이 지도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장로는 한 지역 신권 지도자가 보인 모범을 보고서 이 지도서를 전임 선교사의 영역을 넘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스테이크 회장님 댁에서 살았어요. 회장님의 가족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경전을



공부할 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여러 장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지도서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여러 교리를 읽으면서 기본 원리에서 발휘되는 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 신앙, 속죄, 회개 등을 공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와 같은 원리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제이크 피터슨



제임스는 그 교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앞서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부 회장님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데다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지,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매주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귀찮했을 때에는 이미 그 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 이를테면 제임스는 교육 목표와 영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서는 자신이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면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덕분에 알게 되었지요.”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는 도구

선교사로 나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사용한 적이 없는 회원들도 이 지도서의 힘을 경험하고 있다. 제이크 피터슨은 힝엄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지부 회원이다. 제이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나오기 전에 선교사로 봉사했지만, 이 지도서에는 복음을 나누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부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고 말한다. “때때로 회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선교 사업으로 유난 떨 필요가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선한 일을 하며 잘 사는 걸. 그 사람들에게 교회 얘기를 해서 괜히 어색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 대답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고,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며, 가장 깊은 소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지도서를 공부한다면 모든 회원들이 늘 기본 복음 교리에 기초를 둘 수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저는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하이럼 스미스의 말씀을 좋아해요.²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이 인용 말씀과 여러 교리를 읽으면서 기본 원리에서 발휘되는 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 신앙, 속죄, 회개 등을 공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와 같은 원리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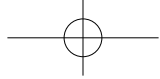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힝엄 스테이크의 또 다른 회원인 릭 도안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와드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릭은 이 새로운 도구가 부름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점을 직감했다.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와 협력하는 방법이 수록된 장이 있어서



지도서를 구하는 방법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배부 센터에 여러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preachmygospel.lds.org에 접속하여 PDF 파일을 받아 보거나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선교사들은 잠시 머물다 가고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은 워드 지도자들이잖아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 지도서에 그 점이 강조되어 있어 기쁩니다.”

릭과 그의 아내 모쉬는 이 지도서가 어린 아들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각 장에 소개된 십오 분짜리 공과는 가정의 밤에 안성맞춤입니다.” 릭은 설명한다. “원리에 초점을 맞춘 이 공과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기초를 만들 수 있어요. 성구와 활동도 나와 있고,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때에도

열아홉 살인 마크 워즈워스는 현재 스페인 빌바오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이다. 워즈워스 장로도 규칙적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활용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부터 이 지도서를 공부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얻었어요.”

워즈워스 장로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면서 선교 사업 기회를 발견했다. 그가 사는 지역 선교사들은 워즈워스 가족들이 가족 선교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 주었다. “그러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워즈워스 장로는 교회 교리와 역사,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 친구들과 더 많이 대화하게 되었다.

“가족 선교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많았지만 계획을 세운 후에는 그들을 대하는 제 반응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워즈워스 장로는 말한다. “제가 이미 해 오던 일에 대해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것이었죠.”

열여덟 살인 앤드류 멜로는 선교사 지원서를 몇 달 후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앤드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는 것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개인 공부는 앤드류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한 방법이다. 제사 정원회에서 하는 훈련도 준비에 도움이 된다. 매달 첫째 주 안식일이면 제사 정원회 형제들은 돌아가며 친구들과 고문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책으로 공과를 가르쳐야 한다. 45분 정식 공과를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연습 차원에서 15분 혹은 5분짜리 여러 가지 토론을 가르치기도 한다.

앤드류는 이러한 과정이 전임 선교사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생활에도 유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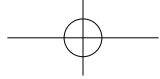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것들이 늘 제 생각 속에 머문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깨달아요.” 앤드류는 말한다. “저희 고등학교에서 제가 유일한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교회에 대해 물어봐요. 그때마다 *나의 복음을*



“이 책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기초를 만들 수 있어요. 성구와 활동도 나와 있고 가정이나 그 어디에서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릭 도안



“이 지도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얻었어요.”
마크 워즈워스 장로



“질문에 답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다양한 화제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면 그러한 상황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앤드류 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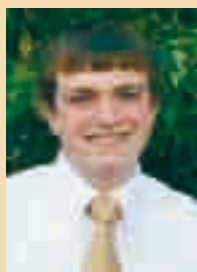
전파하라에 나오는 토론과 기술들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질문에 답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다양한 화제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면 그러한 상황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앤드류 멜로처럼 열아홉 살이 된 앤드류 하비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고등학교 시절에 접하게 되었지만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그 지도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귀환 선교사인 룸메이트와 선교 사업 준비반에서 받은 영향으로

하비는 전에 없이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더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한층 체계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며, 더 실질적으로 선교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하비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을 잡기 위해 나의 복음을



“이미 아는 것들이었고 간증도 있었지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덕분에 …… 그 원리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패트릭 스미스

전파하라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하비는

경전 공부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기록할 뿐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톰 스미스

공부한 원리에 부합하는 성구를 경전에 표시하고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하지만 성구를 표시하고 색깔로 구분하거나 기록하는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금방 깨달았다. 그보다는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맞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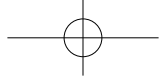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교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 공부를 위해서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목적으로든 우리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요.”

형업 스테이크의 또 다른 청남인 패트릭 스미스는 한 달에 한 번 지부의 아론 신권 모임에서 청남들이 선교 사업 경험을 나누고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일할 시간을 정한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 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미 배운 적이 있는 한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패트릭은 말한다. “장로님들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것과,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일을 가르쳐 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보충 성구도 나와 있었어요.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죠.

이미 아는 내용이었고 간증도 있었지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덕분에,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가르치는 기회 덕분에 그 원리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지도서에 요약된 교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집과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이 임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영광을 성취하는 조력자

패트릭의 형인 톰은 2009년 8월에 캘리포니아 벤투라 선교부에서 귀환했다. 톰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선교 사업에 쓰이는 가장 훌륭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여긴다. 톰은 이 지도서가 선교 사업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교 사업에 관한 거의 모든 예언적인 구절들이 나오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회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가르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1~13쪽 부분에 주목한다. 그것을 보더라도 선교 사업에서 회원이 해내야 하는 역할이 중대하고, 선교 사업이 단지 전임 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톰은 말한다.

“선교 사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톰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선교사가 맡은 책임과, 선교사와



회원에게 이 의무가 주어진 이유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세서 1장 3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선교 사업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녀들이 그분께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원 선교사로서 저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포함하여)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드리며 영을 구하면 무슨 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복음을 나누고 간증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2쪽.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쪽 참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다 음 주소들과 기사들은 LDS.org에 접속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09쪽.
-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쪽.

-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33쪽.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듭”, *리아호나* 및 *Ensign*, 2006년 5월호, 84쪽.
- 리차드 지 스코트, 십이사도 정원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아호나*, 및 *Ensign*, 2005년 5월호,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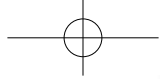


주님을 찾는 통가 성도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통가 회원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희생할
때 어떻게
축복이
쏟아지는지를
들려준다.





안 개 낀 어느 서늘한 아침, 통가의 주요 섬인 통가타푸 북동부 지역에서 필리모네 투푸이 파시는 “미개간지에서” 땅을 갈기 위해 작업복을 입는다. 이 말은 작은 농지에서 일을 한다는 통가식 표현이다. 필리모네의 콘크리트 벽돌집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다. 농지로 가려면 습지를 건너 키 큰 야자수 아래, 잎이 넓은 타로토란 식물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날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인 파시 회장은 농지로 가지 못했다. 교회 회원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기 때문이다. 말수가 적고 겸손한 파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아내인 아나 말리나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이날 아내와 딸은 학비와, 선교 사업을 나간 자녀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타파(종이뿔나무 속껍질로, 태평양 제도에서 질긴 천을 짜는 데 사용됨-옴긴이) 천을 짤 계획이었다.

몇 분 만에 파시 회장은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도울 채비를 해서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결정으로 파시 회장은 하루벌이를 잃게 된다. 그러나 파시 회장은 자신이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띤다. “저는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토록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헌신과 충실함은 통가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흔한 모습이다. 그들은 복음대로 충실하게 생활할 때 축복을 받는다고 간증한다.

봉사할 신앙

교회 안에서 성장한 리올라 크리스티네 나우 헹가노는 종종 자신의 고장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보았다. “저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어요.” 하고 리올라는 말한다. 하지만 선교 사업을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리올라는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몹시 아팠다. 의사들은 리올라에게서 종양을 발견하여 제거 수술을 해야 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통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이 왔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두 달 동안 리올라는 요양을 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리올라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 몸으로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모님이 선교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믿고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리올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자

위쪽: 리올라 헹가노(삽입 사진)는 종교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청소년 주일학교 반을 가르친다. 맨 왼쪽: 필리모네 파시와 아내 아나 말리나; 삽입 사진: 필리모네 가족이 종이뿔나무 껍질로 만드는 타파 천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부 회장님께서 제게 축복을 주시며 주님께 봉사할 때 다른 선교사들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선교 지역에서는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봉사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거든요. 경전도 들고 가야 했고 햇볕도 정말 따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건강해질 거라는 신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괜찮았어요. 그 병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선교 사업을 나갔고 중간에 되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랬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간증도 있는 거예요. 저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순증

리올라가 충실하게 봉사한 것은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증을 통해 그런 간증을 얻은 또 다른 회원들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아나우 부나 할라이다. 아나우는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지만 거의 곧바로 저활동이 되었다. 누이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지만,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나우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성인이 된 아나우는 후기 성도인 키나쿠이아(키나) 할라와 결혼했다. 어느 날 아나우는 아내가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나우가 말한다. “학교 교사 봉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위쪽: 아나우 부나 할라와 아내 키나와 그들의 아기. 아래쪽: 쿠미포누아 타우모 에페누(가운데)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간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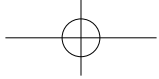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더는 십일조를 내지 않기를 바랐어요. 몇 해 동안 그 문제로 다투기도 했죠.”

키나는 남편에게 십일조를 내는 일이 좋은 일임을 납득시키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아내는 가정 복음 교사를 데려와서 우리에게 십일조 원리를 가르치게 하더군요.” 아나우는 그때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십일조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함께 그 율법을 지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아나우는 생활 속에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다. “맨 먼저 십일조를 내고 그 다음에 각종 청구서 대금을 치르고 나니까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나우는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때때로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곳에서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항상 넉넉했어요.”

축복은 재정적인 면에만 그친 게 아니었다. 아나우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졌죠. 그리고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식비와 다른 생필품 값이 만만치 않으리란 건 알았지만 우리가 충실하고, 십일조도 내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든 잘 풀리리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교회 학교인 리아호나 고등학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성전에서 인봉 받았습니니다.”

저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십일조를 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원리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축복하셨어요. 저는 그 율법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이 미치는 영향력

쿠미포누아 타우모에페누 (포누아)는 길을 잃고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에도 강한 확신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1995년에 침례를 받은 포누아는 곧바로 여러 교회 직분에서 봉사했다. 또한 청량음료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속 승진을 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포누아는 잦은 출장으로 영적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활동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포누아는 한 패거리와 마주쳤는데, 그들은 이유도 없이 그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그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포누아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되새겨 보았다. “제 생활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를 보고 제 아이들도 잘못된 결정들을 내렸거든요. 아이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포누아는 말한다.



금식과 몰몬경이 발휘하는 힘

텔 레시아 팔라타우는 침례를 받고 나서도 새로 받아들인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때문에 힘들어했다.

“남편이 저활동이라 때때로 시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어요. 저는 특별히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가르침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텔레시아는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자매들과 친분을 쌓는 일을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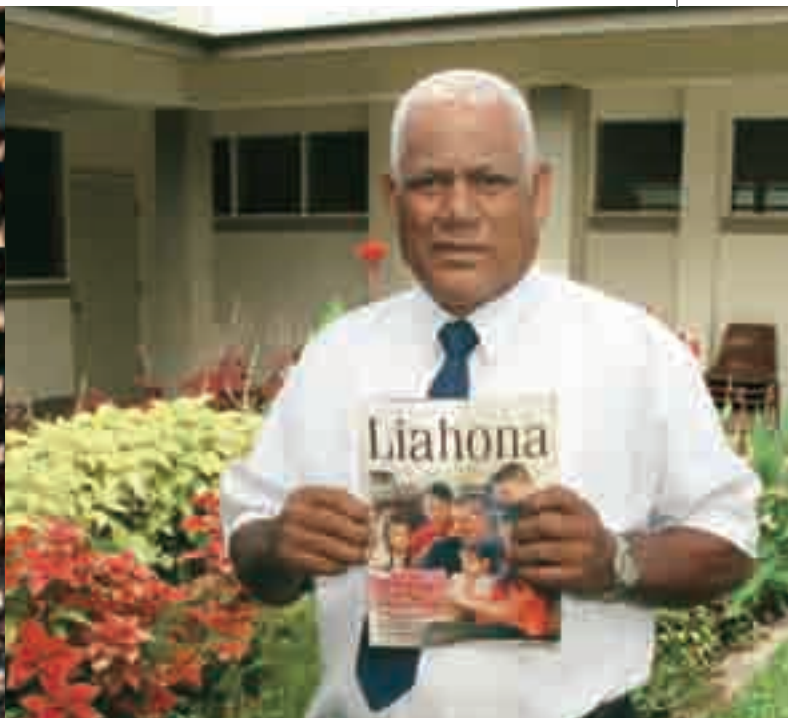
“하지만 가정에는 불화가 있었어요. 자녀를 갖기 시작했을 때 남편과 저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이 부부는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되는 것에 더하여 두 가지 일을 하기로 합의했다. 매주 금요일에 금식을 하고 매일 몰몬경을 읽는 일이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잘 따라주었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고, 부부는 금식하고 몰몬경 읽는 일을 계속했다. 텔레시아가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더욱 강해졌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했으며, 가정은 화평을 느끼는 장소가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텔레시아와 남편은 성전 봉사자로 봉사한다.

“충실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제 삶을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몰몬경을 공부하고 금식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삶이 변화했어요.”





위쪽: 바에아
타운포오우는
자신의 삶에 대해
들려주며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기도와 금식을
한 후 바에아와
약혼녀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도움을 받아
뉴질랜드에 있는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때 포누아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회개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진 후에는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포누아는 성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쳐보았다. “제가 그곳에 있기에 합당하다는 건 알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제가 한 일을 평가해 보았죠. 저는 주님께 좋은 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새 직장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침 포누아는 뉴질랜드에서 급여 조건이 좋은 직장을 제의 받은 상태였다.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제의를 수락하라고 했다. 포누아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통가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동안 포누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제 자신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한 결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전에서 어떻게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그 직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포누아는 통가에 남아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시기에 포누아는 성전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 포누아는 자신이 충실히 봉사했을 때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한다. 포누아는 곧 건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계약을 따냈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통가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며 가족을 돌보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지요.

제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축복은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이들도 축복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교회 회원들에게 많은 패를 끼쳤는데 이젠 아이들이 달라져서 교회에 잘 참석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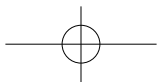
희생은 축복을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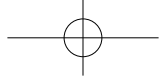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바에아 탄기타운 포오우는 교회에서 충실한 회원이 되기 위해 육체적으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교회에 가입했던 열아홉 살 때 바에아는 하파이 군도 외곽 섬 중 하나인 포아에서 살았다. 바에아가 받은 첫 번째 부름 중 하나는 청소년 지도자로 봉사하는 것이었다. 다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에아는 종종 이웃 섬 판가이 시내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그곳에 가려면 먼저 해변까지 11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다. 그런 다음 썰물 때를 기다렸다가 조류가 너무 거세지 않을 때 얇은 물속을 걸어서 이웃 섬으로 갔다. 그런 후 도착할 때까지 또 계속 걸었다. 그렇게 하는 데 거의 한나절이 걸렸고 때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밤새 기다리기도 했다.

바에아는 이렇게 말한다. “모임에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증이 강해졌죠.”

바에아는 어릴 적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교회에 대해 떠도는 거짓 소문을 듣고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가족에게 교회 회원 친구가 생겼다. 그들에게서 좋은 모범을 보고 바에아 가족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바에아의 누이는 침례를 받았다. 일 년이 지난 후에 바에아도 교회에 들어왔으며 곧 부지런히 봉사하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의 지방부는 크게 성장하여 스테이크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판가이에서 모임을 마치면 바에아와 다른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방부 회장은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모임에 다시 오기를 바랐고, 그것도 정시에 참석하라고 말했다. 집에 갔다가 제시간에 돌아오기 위해 바에야는 대부분 뛰어다녀야 했다.

“너무나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지방부 회장님이 스테이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금식을 하라고 요청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임에 참석하고 정시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그 후에 저는 감독 부름을 받았는데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기에 그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금식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믿습니다. 얼마 뒤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님께서 오셔서 스테이크를 조직하셨거든요.”

그러나 바에야에게 가장 큰 도전은 성전에 가서 인봉을 받는 일이었다. 결혼을 약속한 바에야와 바에야의 여자 친구는 둘 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가까운 성전은 뉴질랜드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는 경비는 어마어마했다.

“우리는 성전에 갈 방법을 찾기 위해 일 년 동안 화요일마다 금식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북쪽에 있는 섬에 살았고 저는 하파이에 있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저희 이야기를 들은 사업가 두 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시다. 실제로 그분들은 여비를 대 주셨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정말로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되갚을 길이 없었지만 그분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었죠.”

복음대로 생활할 때 오는 축복

수고하여 기르는 타로토란과 야자수가 생계에 도움을 주듯이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통가 성도들은 배웠다. 통가 해안에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주님께서서는 이 회원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신다. 회개든 십일조든, 또는 일상적으로 하는 단순한 헌신을 통해서든 그들은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화평과 위안과 행복을 얻었다. 통가 회원들은 그와 같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그러한 축복이 올 수 있다고 간증한다.(모사이야서 2:24, 41;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

통가 뉴쿠일로파 성전 사진 촬영: 윌리엄 플로이드 홀드먼

회개하여 받은 축복

시 오네 피나우는
“행복하게”(니파이후서 5:27)

생활하는 힘을 어렵게 배웠다.

통가에서 태어나 하와이에서

자란 시오네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시오네가 말하는 자신의 문제 중 일부는 자신을 금단의 길로 손짓한 친구들이었다. 이윽고 시오네는 너무 많은 문제에 연루되어 통가로 돌아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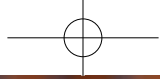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시오네는 말한다. “저는 교회에서 굳건하고 활동적인 고모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고모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청년 독신 성인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들에게서 색다른 행복을 보았습니다. 복음 생활에서 오는 깨끗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종교 교육원에도 참석하고 기타 활동에도 참석하게 되었죠. 간증도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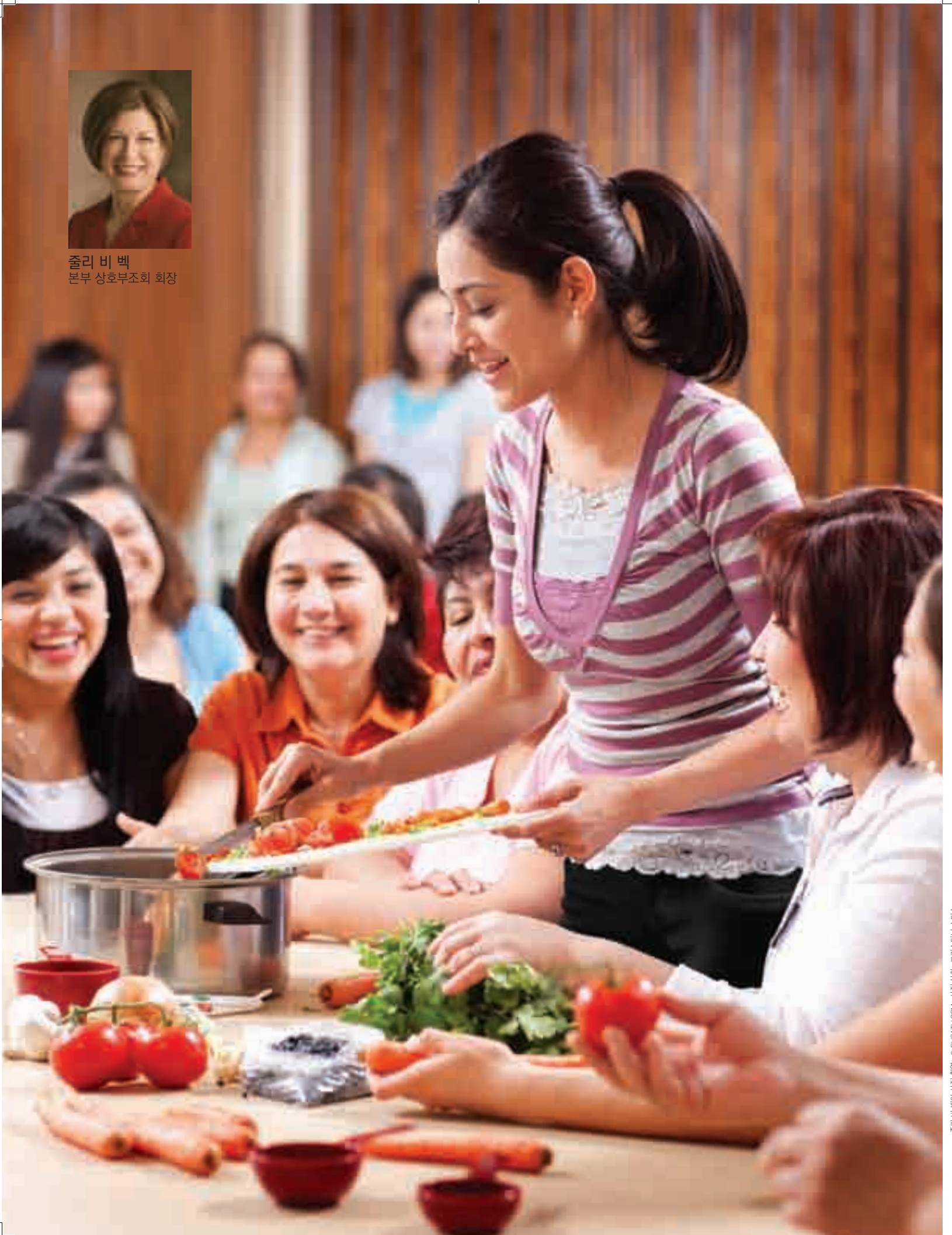
시오네는 이제 생활 속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회개 원리는 우리가 이생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예요.” 시오네가 설명한다. “제가 받은 모든 축복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제가 어떤 부름을 받든,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 해 전에 그 약속을 했고, 결코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 생활을 다 해 봤고,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인지 알거든요.”

시오네 피나우와 아내 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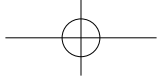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줄리 비 벅의 사진 촬영: © RISO.TH.COM; 사진 상형: 크리에이티브 스타디스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가르치고 영감을 주십시오

영감에 찬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신권 지도자들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과업을 성취합니다.

세 계 곳곳에 있는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후기 성도 자매들을 가르쳐 주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필리핀에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필리핀 세부 성전이 헌납된 후에 그 성전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준비시키려는 지역 회장단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논의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성전 준비, 단정한 옷차림, 십일조의 축복을 주제로 추가 상호부조회 모임을 열었습니다.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에 홍수가 잦은 멕시코시티에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신속히 집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미망인이 스무 명이나 있는 또 다른 와드에서는 지도자들이 그 자매들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상호부조회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젊은 어머니들을 강화하고 가르치기 위해 상설 부모 교실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페인어로 부모교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기본적인 가사 기술을 배워서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요리, 바느질, 집 꾸미기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2009년 9월 26일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상호부조회 모임 정책을 실행한 결과입니다.¹

함께 일하십시오

상호부조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신권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상호부조회는 모든 문화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는 자신의 단위 조직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각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각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은 각자 맡은 책임에 대해 영감을 받도록

상호부조회 목적

주 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상호부조회 목적은 여성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도와서 영생을 축복받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1. 신앙과 의로움을 키운다.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3.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는다.
- 교회에서 각 자매가 상호부조회 목적을 달성하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공지를 하는 방법

일 요일이 아닌 주중에 열리는 각 상호부조회 모임은 상호부조회 봉사 모임, 강좌, 계획, 회의, 워크숍 등으로 불릴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모임 공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이다.

- “상호부조회 강좌에 오셔서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 “이번 목요일에는 모든 자매님을 대상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정의 밤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해 상호부조회 모임을 열겠습니다.”
- “원에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상호부조회 워크숍을 열겠습니다.”
- “토요일 아침에 상호부조회 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성별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와드나 지부 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아닌 소속된 조직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칠레든 홍콩이든 가나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각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협력하여 일한 두 상호부조회 회장의 이야기를 실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유타 주 플레전트그로브에서 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상호부조회 모임을 계획하기 전에 감독과 만나 와드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그 목표를 기초로 모임을 하나 계획했는데, 이 모임에서 와드의 한 자매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정의 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뜰에서 키운 농작물 저장법을 비롯하여 몇 가지 원에 강습도 계획했습니다. 감독과 함께했던 회장단 모임에 대해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독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유타 주 리하이에 있는 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reliefsociety.lds.org에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여 감독에게 6개월치 모임을 건의했습니다. 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보좌에게 매달 모임을 계획할 때 상호부조회 목적에 초점을 두도록 상호부조회 모임 코ордин이터를 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상호부조회 위원회 위원들과 모였을 때 그들은 위원들에게 와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도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승인을 받아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영감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상호부조회 회장은 아름답고 상세한 계시를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자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자매들이 겪는 어려움과 번민, 기쁨과 슬픔을 아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해결책은 신앙으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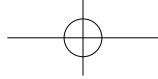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목적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자매들과 그 가족을 위해 새로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은 자매들이 자신의 필요 사항과 와드 또는 지부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가르침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

주
1. 줄리 비 백,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110~114쪽 참조.

상호부조회 모임에 관해 더 많은 사항을 알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사진 상해, 이스라엘 엔터테인먼트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변경된 사항 요약

- 상호부조회 모임 명칭은 상호부조회 목적과 일에 맞게 정한다.
- 상호부조회 회장과 감독 또는 지부 회장 간에 협의를 장려한다.
- 자매들이 신앙과 의로움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한다.
-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도록 강조한다.
- 자매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부조회 모임에 대한 정책 요약

- 상호부조회 회장은 모든 상호부조회 모임을 감독한다. 회장은 제1보좌 또는 제2보좌에게 상호부조회 모임을 지원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와드 또는 지부에서 자매 한 명을 상호부조회 모임 코오디네이터로 부를 수 있다. 코오디네이터를 돕기 위해 상호부조회 모임 위원회를 부를 수 있다.
- 추가 상호부조회 모임들은 일반적으로 매달 열리지만,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빈도수를 늘리거나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적어도 분기마다 모임을 열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통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해야 한다.

모든 상호부조회 모임에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

- 모임을 계획할 때 지도자들은 결혼과 가족, 가사, 검소한 생활과 자립, 온정 어린 봉사, 성전 및 가족 역사, 복음 나누기, 기타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이 요청한 주제 등 상호부조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모임은 한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반 또는 활동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들이 이러한 모임에서 교사가 되어야 한다.
- 이러한 모임은 특히 초등학교나 청년회에서 봉사하거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매들에게 일요일 가르침을 보충하는 귀중한 모임이 될 수 있다.
-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재정과 활동에 관한 교회 정책을 따라야 한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모임

스 테이크 회장이 승인하면 매년 스테이크 내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를 위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모임을 한두 번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스테이크 모임 중 하나는 연례 상호부조회 총회 방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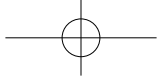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함께 열 수 있으며, 올해는 9월 25일에 총회가 열린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협의하는 일

상 호부조회 모임을 적절히 활용하면 모든 와드 또는 지부에서 상호부조회가 신권 지도자들과 강력한 방법으로 일하는 역량이 커질 것이다.

- 상호부조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이 모임들을 통해 개인과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지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자매들의 시간, 가족 상황, 이동 거리와 비용, 안전, 와드 또는 지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비용, 기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이 승인을 하도록 상호부조회 모임을 건의한다.





저와 기도하실래요?

“**금** 방 올게.” 태국인 주인아저씨는 현관문을 나서며 말씀하셨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다. 내 태국어 실력은 기껏해야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나는 약 4개월 정도 태국에서 살면서 지역 자원 봉사자로 일했다. 간단한 태국어를 구사하긴 했지만 갈 길이 멀었다.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주인집 가족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내 가치관을 설명했고 태국어 물론경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도 주었다.

주인아저씨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거실 바닥에 앉아 태국어 회화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현듯 아저씨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아저씨에게 여쭙보기 전이었지만 그토록 강한 느낌을 받은 일은 처음이었다. 태국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복음을 나누었지만 누구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주인 아저씨와 가깝게 지냈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를 정도였고 그분도 그걸 좋아하시는 듯했다. 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이내 초조해졌다. 아저씨께서 거절하시면 어찌지?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와 함께하는 자리를 거북해하신다면?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해야 할까? 게다가 나는 태국어로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다. 함께 기도하자는 말을 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잠시 후,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아저씨는 들어오시면서 내게 인사를 건네시며 이제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을 떼자마자 태국어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올랐다.

“아빠, 미국에서는 늘 가족과 기도했어요. 가족 기도를 하던 시절이 참 그리워요. 저와 기도하실래요?” 아저씨께서 보이신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다.

“물론이지, 존. 어떻게 하는지 알려다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태국어로 설명했지만 기도는 영어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아저씨가 영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도를 마칠 때 아저씨가 “아멘.”이라고 하셨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주인 아저씨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느낀 사랑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주인집 식구들은 그곳 지부에 참석하자는 초대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누는 복음 지식이 머잖아 그들에게 축복이 되리란 사실을 안다.

노력에 따른 결실이 늘 이생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음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적어도 한 사람, 즉 복음을 나누는 사람의 인생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 씨앗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

조나단 에이치 보우든, 미국 유타 주



아저씨가 기도하기 싫다고 하시면 어찌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해야 할까?



이나키는 집에 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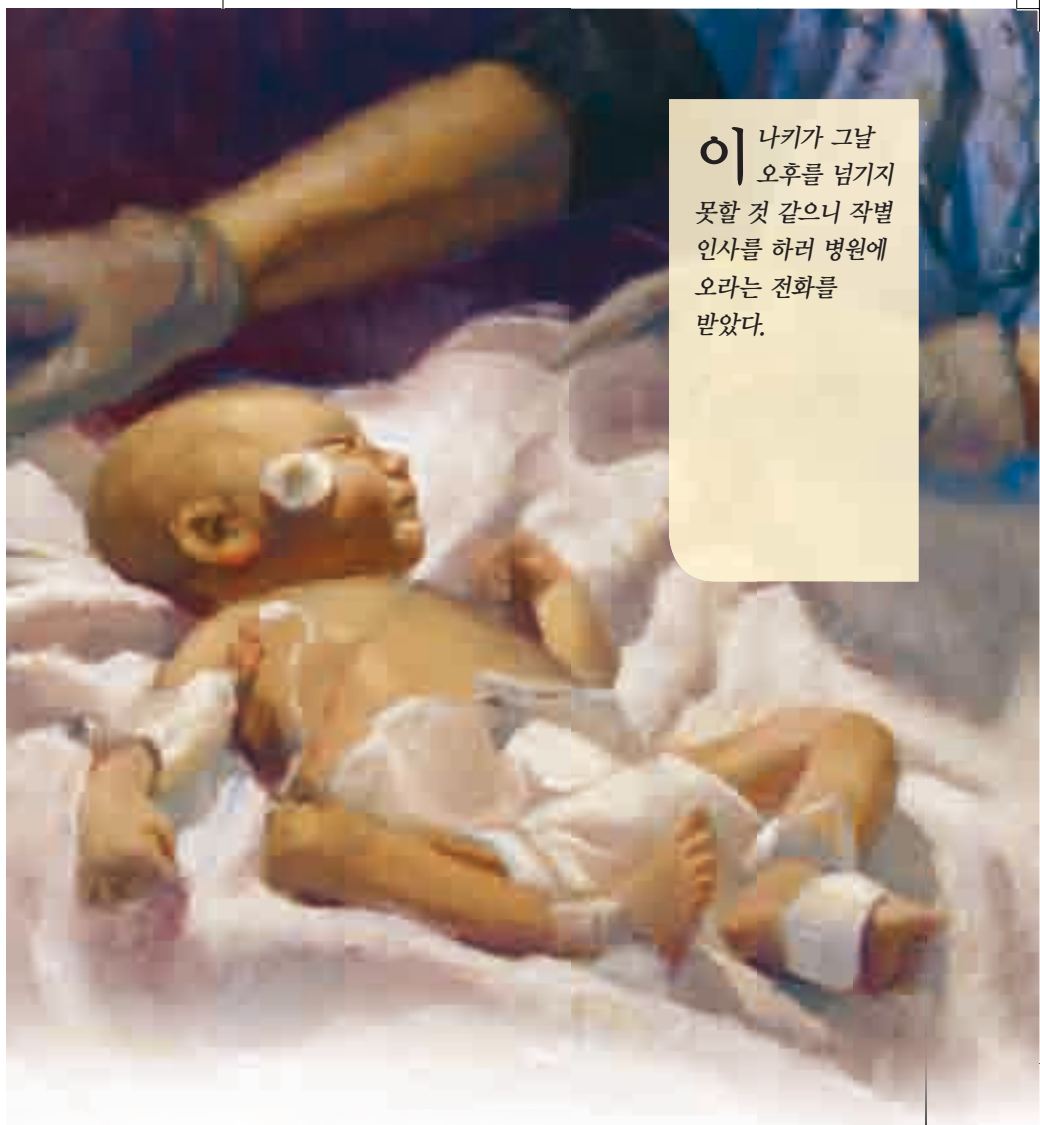
임 신 23주 만에 셋째 아들 이나키가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아기는 몸무게 560그램에 신장이 31센티미터밖에 안 되었다.

이나키는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미숙아로 태어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했다. 담당 의사는 죽음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정말 아기를 치료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나키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다.

이나키는 태어난 날 밤에 병자 축복을 받았다. 그 뒤로 지나간 넉 달 동안 장천공(창자 벽에 구멍이 생기는 병-웁긴이), 뇌출혈, 무기폐(기관지가 막혀서 폐 일부에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웁긴이)로 고통을 받았다. 이나키의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유아 축복과 명명을 병원에서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만나 서로를 돕고 위로했다. 또한 힘껏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어느 날, 이나키가 그날 오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에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이나키를 안고 말을 걸었다. 쇠약한 이나키를 보고 있자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남편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나키를 잠시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할 수 있는 일은 이나키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키가 그날 오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에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뿐이었다. 이나키는 그날 오후를 무사히 넘겼으며, 그 후로도 고비들을 잘 넘겨 주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나키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낸 넉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사와 신권 소유자들을 통해 이나키를 축복하시고, 마침내 이나키가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으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권 권능을 거듭 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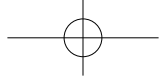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2008년 10월, 이나키는 집으로 왔다.

이 경험에서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반드시 견뎌야 할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영원한

가족을 주신 목적과, 가족이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단합하고 이웃이 겪는 고통과 필요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모든 것이 이나키 덕분이고 그 아이가 우리 인생에 일으킨 기적 덕분이다. ■

폴리나 델 파일렐 젤라다 무뇨즈, 칠레 산티아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엘 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할 때였다. 선교부 회장님은 나에게 여러 해 동안 폐쇄되었던 지역으로 이동을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곳 지부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지부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친구들이 있었다. 한 회원은 우리에게 아나 오비에도라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 아나는 변화가 길모퉁이에서 집에서 만든 음식과 과일을 팔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음식을 팔고 있는 아나에게 집으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도 되는지 물었다. 아나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찾아가니 아나와 네 자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자기 소개를 한 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받는 축복을 가르치라는 영감을 받았다. 십일조와 선지자 말라기가 한 약속도 덧붙여 가르쳤다.(말라기 3:10~12 참조)

아나는 늘 하던 대로, 일요일인 다음날에도 음식을 팔 준비를 이미 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니의 수입이 절실한 이 가난한 가족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아 나는 늘 하던 대로, 일요일인 다음날에도 음식을 팔 준비를 이미 해 두었다고 말했다.

드렸다.

다음날,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아나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팔려고 준비해 둔 음식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장로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더니 아나는 이렇게 물었다. “장로님, 십일조는 어디에 내나요?”

신앙을 행사하는 아나에게 감동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이 가족을 위해 드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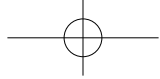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다음날 저녁, 우리는 아나 집에 다시 들렀다. 아나는 하나님께서 그날 자신을 크게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아나는 평생 그 길모퉁이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음식을 팔았지만 늘 팔지 못하고 남는 음식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월요일에는 오후 1시에 음식이 모두 팔렸다고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주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신 덕분에 아나는 이제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곧 아나의 자녀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아나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침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나는 복음에 충실하게 생활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꾸준히 교회에 참석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안다. ■

줄리오 세사르 메를로스, 미국 텍사스



짐에게 내 도움이 필요해!

슬 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남편 짐과 나는 오리건 해변에 있는 작은 집에 세 들어 살았다. 정부에 고용된 지형도 제작 기사인 짐은 그때 오리건 해안 지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을 맡아 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짐은 전날 하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료 기사와 길을 나섰다. 해변은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짐은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지으려는데 지금 식사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밤 짐이 저녁을 먹으러 오지 못할 것이란 느낌이었다. 곧이어 이런 느낌도 받았다. 짐이 곤경에 빠졌고,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느낌은 귀로 들은 것처럼 마음속에 선명하게 전해졌다. 짐을 도와야 했다. 하지만 짐은 어디에 있을까? 매일 해변 근처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날 어디서 작업하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차를

몰 것인가? 약간 주저했으나 남쪽으로 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뒤로 여러 출구를 지났다. 그 중 한 곳에서 짐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서 1차선 도로 중 한 곳으로 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길은 곧 진창이 되고 말았다. 나는 차를 돌려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 한심하군.'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쪽으로 차를

돌리자마자, 나는 풀이 죽은 기사 두 명과 맞닥뜨렸다. 아무도 차에 태워 주고 싶어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진흙 범벅이었다. 짐이 동료와 함께 타고 온 트럭은 진창에 빠져 버렸다고 한다. 트럭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차를 버려두고 뺑뺑한 덩불을 헤쳐서 고속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다고 했다.

“우리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짐과 동료가 물었다. 영에 인도된 과정을 설명하며 나도 똑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짐이 도움을 간구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성신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에 함께 감사드렸다. ■

진 파트리지, 미국 유타 주

나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1차선 도로 중 한 곳으로 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길은 곧 진창이 되고 말았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귀환 선교사들에게

우리에게는 선교 사업을 위해 다시 한 번 일어설
충성스런 귀환 선교사 군대가 필요합니다.

귀환 선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전에 떠나온 세계로 되돌아가 적응하는 일이 때로는 힘겹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주, 한결같이 힘찬 기도를 드리며

선교사 시절을 떠올릴 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일입니다. 당시에 선교사 훈련원은 솔트레이크시티 스테이트 거리에 있었습니다. 넓은 집을 선교사 훈련원으로 개조해서 사용했습니다. 훈련원에는 커다란 기숙사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각 방에는 침대가 10개 가량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밤에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훈련원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실컷 놀았습니다. 각종 파티와 환송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받을 훈련에 대비해 적당히

쉬면서 준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원 첫날 하루를 마감할 무렵,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잠잘 준비를 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뭔가에 둘러싸인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깹습니다. 몽롱한 잠 기운이 사라지자,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숙소를 함께 쓰는 모든 장로들이 제 침대 주위에 무릎 꿇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경험은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주님을 자주 찾으며 인도를 구하는 아름다운 2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동반자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를 드렸고, 공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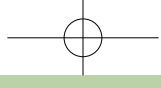
시작할 때, 길 전도를 하기 위해 숙소를 나설 때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사업 방향을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간구할 때에도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간구할수록 부름 받은 사업에 매진하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때로는 놀라울 만큼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날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수록 성신께서 더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뒤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선교 사업 때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도 있었고, 세상에 발을 담그면서 꾸준하고 충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 시절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일 세상 일로 기도하는 습관을 소홀히 했다면, 위대한 영적 힘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욱 자주, 한결같이, 힘찬 기도를 드려서 선교사의 영을 다시 밝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개인 및 동반자 경전 공부

선교사 시절에 경험한 또 한 가지 즐거운 추억은 매일 하던 경전 공부입니다. 경전 학습 계획에 따라 복음을 공부하는 훈련은 놀랍고도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경전 가르침에



종교 교육원에
참석한다면 마음속에
왕국 교리를 명확하게
간직할 수 있고,
끊임없이 침입하는
세상적인 염려를 덜
수 있습니다.

관한 지식은 개인 학습을 할 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펼쳐집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마련하셨는지, 어떻게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기록하도록 하셨는지를 깨닫고 경이로워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길을 따를 때 오는 축복들을 항상 명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알려 줍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 혹은 그 이상을 동반자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왕국 교리를 탐구하니 이해력이 몇 배나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읽은 후에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나눴습니다.

매일 개인 공부와 동반자 공부를 하다 보니 통찰력도 커졌습니다. 동반자와 더욱 친밀해졌고, 왕국 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하면 학습 습관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동반자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그런 습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귀환 후에도 매일 가족과 함께 경전을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떠나 생활한다면, 방 친구나 다른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학습 모임을 열고 종교 교육원에 참석한다면 마음속에 왕국 교리를 명확하게 간직할 수 있고, 끊임없이 침입하는 세상적인 염려를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면 복음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영원한 동반자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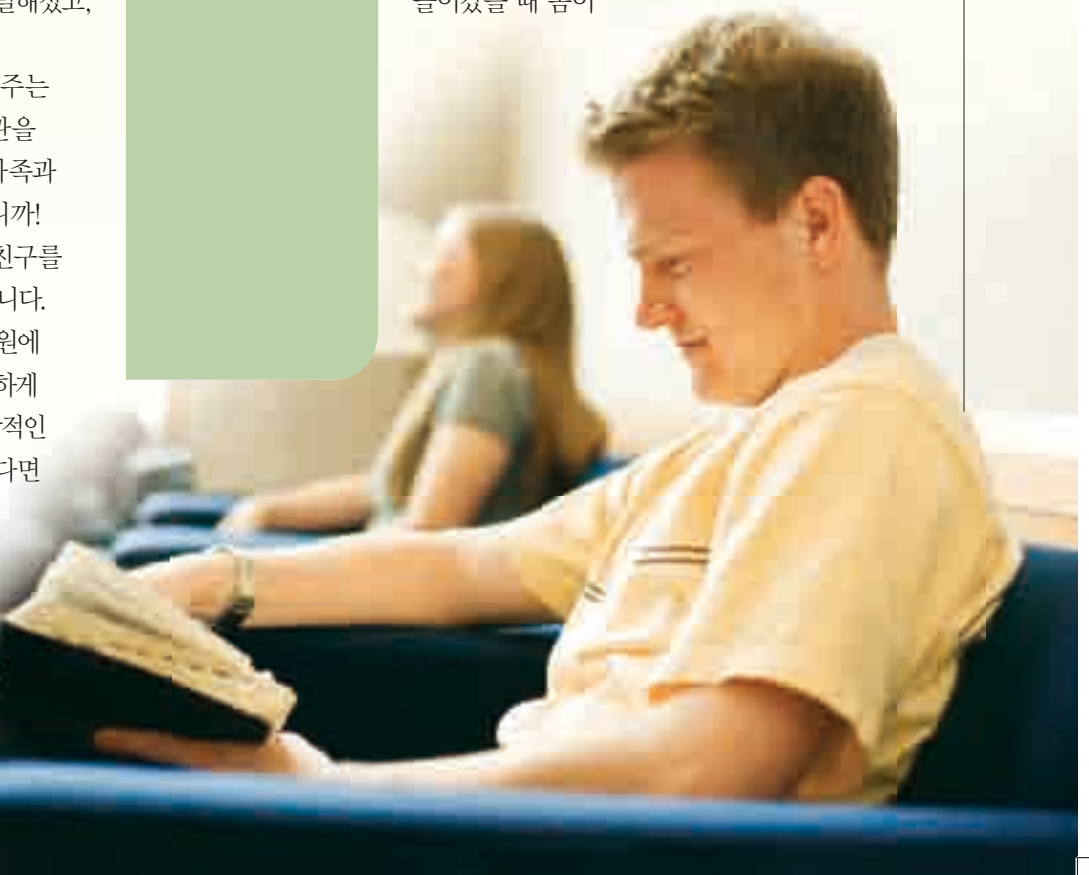
경전을 읽으면 늘 인생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충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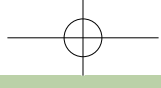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정기적인 개인 및 동반자 경전 공부 습관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며 느끼는 기쁨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접해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느끼는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율법과 주님을 따를 때 받는 축복을 가르치며 느낀 희열을 기억하십니까? 선교 사업을 하며 처음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느낀 기쁨을 잊을 수 있습니까?

제가 봉사하던 시절에는 집회소에 침례탕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오하이오 주 사이오터강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날이었는데, 물속이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구도자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격려하며 차가운 강물로 들어갔을 때 몸이





움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침례 의식을 집행하자, 추위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구도자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 기회가 전임 선교사 이름표를 다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왜 세상으로 돌아오면 선교 사업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지고 마는지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훌륭한 여건 속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세속적인



비록 귀환 선교사들이 전임 선교사 이름표를 달지는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세상에 복음 빛을 전하겠다는 공통된 결의를 다질 수 있습니다.

것에 끌리는 마음은 커지고 도덕적 가치관은 메말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상실감과 절망감이 커집니다. 우리에게는 선교 사업을 위해 다시 한 번 일어설 충성스런 귀환 선교사 군대가 필요합니다. 비록 전임 선교사 이름표는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는 세상에 복음 빛을 전하겠다는 공통된 결의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귀환 선교사 여러분, 다시 헌신하고,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과 영을 다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에게 주신 본분을 생각하고, 그 본분을 지키며, 그 본분을 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이 위대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간구합니다. 전임 선교사 시절처럼 강한 열의로 계속 힘차게 나아간다면 큰 축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롭게 결의를 다져서 앞으로 나아가, 이 험난한 세상에 모범으로 복음 빛을 비추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

2001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전문을 보려면 www.conference.lds.org를 방문한다.





기쁨을 갖기 위험이니라

안드레아 존스

선교 사업이 기대와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뜻밖에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종종 수포로 돌아가 의기소침해졌다. 다행히도 늘 간증 모임으로 끝나는 선교사 지역 대회에서 나는 힘을 얻었다.

특별히 한 지역 대회가 생각난다. 그 대회에서 모든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하는 기쁨을 간증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내 마음은 불편해졌다. 꼬박 일년이나 선교 사업을 해 왔지만 다른 선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은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대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대체 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며 어떻게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몇 주 후에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 선교부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응답이 왔다. 그분은 수백 명이나 되는 청중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매일 느낄 수 있는

선교 사업이
힘들어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구주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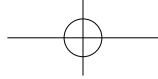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셨다.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구주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간증하셨다.

나는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걸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선교 사업이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그 기쁨은 늘 내 곁에 있었다. 단지 내 마음을 열지 않아서 느낄 수 없었던 것뿐이었다.

그 일이 있는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내가 구주의 구속 권능에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간증하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선교 사업 이후에 나는 상황과 환경은 기쁨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에 영속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그분들은 우리가 “기쁨을 갖[도록]”(니파이후서 2:25) 현세와 내세를 마련하셨다. ■





해답을 찾아서

저는 종종 비회원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
보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제게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친구와 함께 다른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모임에
빠지는 것은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 그들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를 따라가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배워 보고,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예배 방식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예배
방식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친구의 종교에 대해 알아
보는 일은 영적인 주제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 주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친구의 교회에 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우리의 믿음과 표준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기 전에 영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동시에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십시오. ■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시도해 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 믿음을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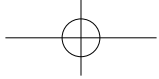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증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간증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글로 간증을 표현하기도 하고,

음악이나 미술로 간증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즉 모범으로
간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간증은 나눌 때
커집니다. 자신감뿐만
아니라 간증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도움과 힘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채워 주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면 간증을 글로 적어서 혼자 큰소리로 읽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33:8 참조)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면 간증을 글로 적어서 혼자 큰소리로 읽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간증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님께 의지하면서 조금씩 나아간다면 모임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는 일이 차차 쉬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간증을 나눌 때 성신으로 감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간증은 여러분의 것이며, 주님과 여러분에게 특별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5쪽; “A Code to Live By”, New Era, 2005년 9월호, 8쪽)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주일학교 시간을 보내는 반원들이 있습니다. 교사님과 감독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 제가 도울 방법이 더 있을까요?



우선 반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교사가 전하는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반원들은 배우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반원들이 수업에 참여할수록 집중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주제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을 함으로써 반원들을 수업으로 끌어들이세요.

성신이 임하여 차분하고 영감을 주는 교실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든 반원이 공과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반원을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싫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화를 내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세요. 자신을 염려하고 공과에 열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여러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

반원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교사가 전하는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질문과 대답을 함으로써 수업에 참여하고 반원들을 끌어들이세요.



이메일로 제목란에 “To the Point”라고 쓴 후 질문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진리는 이기리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까? 내가 받은 응답은 확고했다.

올리버 메이클

나는 활동적인 영국 후기 성도 가정에서 열 자녀 중 여덟째로 자랐다. 충실하신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좋은 모범을 보이셨다. 하지만 열네 살 무렵, 나는 새벽 세미나에 참석하고, 여러 공과반과 노년의 모임에 가고, 청소년 활동에 참석하는 일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내가 배운 것과는 표준이 무척 달랐다.

나는 친구들과처럼 되고 싶었다. 소위 그들이 즐기는 재미를 무척이나 누리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에는 교회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 삶은 더더욱 세상에 물들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인생의 목적과 사람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조금씩

마음속에 차 올랐다. 한때 내가 알던 세상, 사랑했다고 생각한 세상이 아주 캄캄하고 춥고 외로운 곳이 되었다. 내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로는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고향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 내 인생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주 동안 이런 느낌과 생각에 잠겨 지내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이 모두 잠든 밤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기도를 마치고, 생각에 잠긴 채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 안에서 자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점을 진지하게 감사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황무지 언덕에서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를 택했다. 도시락과 경전과 일지를 챙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전하기 위해 꼭대기로 올라갔다.

어느 날 밤, 방법을 바꾸었다. 응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님께서 당장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으로 나는 물론경과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가르침이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다. 아주 강렬하면서도 매우 평화로운 뭔가를 느꼈으며 급기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청소년



심화 브리이언 콜





나는 감독님께 가서 선교사로 봉사해도 되는지 여쭙었다.(공교롭게도 그때 감독님은 나의 큰 형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떨렸지만 주님께서 내 요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경험한 일을 들려주자 감독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나는 비회원 친구인 켈리와 사귀기 시작했다. 나는 켈리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말했다. 달라진 내 모습을 본 켈리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이 일을 계기로 켈리는 선교사 토론을 하고 교회에 가입했다. 나는 켈리에게 침례와 확인을 주었다. 그때, 켈리에게 선교 사업을 한 것으로 주님께 대한 봉사를 완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선교 사업을 나가느냐로 씩씩하다가 켈리를 두고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들워스 더브스톤스라 불리는 황무지 언덕에서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를 택했다. 도시락과 경전과 일지를 챙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전하기 위해 꼭대기로 올라갔다. 기도를 하면서 평화로운 느낌이나 가슴속이 불타오르는 그런 응답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길을 내려오는데 땅에 정성스럽게 놓인 조약돌들이 눈에 띄었다. 이 돌들은 “진리는 이기리.”라는 글자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이상한 일이군.’ 하고 생각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길을 내려오는데 땅에
정성스럽게 놓아 둔 조약돌들이
눈에 띄었다. 이 돌들이 놓인
모양은 선교사 역사에서 잘
알려진 글귀였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 메시지를 누가
남겼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게 응답이란다.” 하고 말씀하셨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1837년에 처음 영국으로 왔을 때 프레스턴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에 그 도시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기리는 성대한 행사가 한창이었다. 선교사들은 마차에서 내리다가 머리 위로 휘날리는 기치를 보았다. 기치에는 굵은 금박 글씨로 “진리는 이기리”라고 써 있었다.

그 구절은 교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으며 여러 출판물에도 등장했다. 한 장로는 인디애나에서 선교 사업을 한 내용을 편지로 적었는데, 그 편지는 1841년 나부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한 이들을 택하시어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진리는 이기고 번성할

것입니다.”¹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스물한 번째 생일에 생일 축하카드와 함께 영국 런던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장이 왔다. 여러 해 동안 활동이 뜸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고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도 느꼈다. 나중에야 그 초기 선교사가 이해한 내용을 이해하게 됐지만 말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이들을 택하시지만 진리는 이기고 번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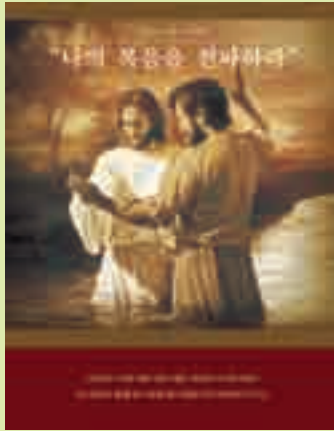
나는 신앙으로,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성전을 나오면서 우리 와드에서 봉사하던 두 선교사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황무지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한 장로가 환하게 웃으면서 어느 특별한 준비날에 동반자와 그 황무지로 도보여행을 갔다고 말했다. 그때 한 지점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언덕 중턱에 “진리는 이기리”라는 유명한 글귀를 쓰고 싶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내막을 알게 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그 황무지에 수 킬로미터나 되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는 선교사들이 조약돌을 놓아 둔 정확한 장소로 발을 디딘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주님께서 그날 그 언덕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주

1. Jacob Gates, *Times and Seasons*, 1841년 12월 1일, 621쪽.

우리들 공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매료되다

하루는 집에서 청소를 돕고 있었는데, 오빠가 선교 사업 시절에 보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책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 내려놓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청소가 덜 끝났기 때문에 책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하는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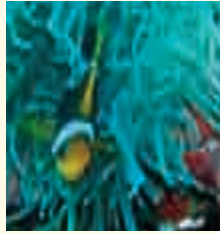
궁금했습니다. 저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선교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앨리사 에프(위), 19세, 미국 뉴햄프셔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 뒤로 수중

디지털카메라를 구해서 바닷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물고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저는 모세서 6장 63절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 땅 아래 있는 ……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베이츠 장로, 20세, 필리핀 카우야안 선교부

내가 좋아하는 성구 니파이후서 2장 13절

이 성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없다면 의로움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구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리아 에이치(아래), 15세, 독일 헤세



청소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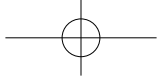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청소년 대회에 참석할 당시에는 이 모임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활동으로 가득한 사흘을 보냈으며, 저는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새 친구를 사귀며 대회에 푹 빠졌습니다. 제일 좋았던 부분은 간증 모임입니다. 청소년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자 영이 강하게 임했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느낌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으며, 저는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았고, 교회 음악이 아닌 노래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서 교회에 대한 간증이 참으로 강해졌습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은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이 함께하는 만한 행동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경전 공부, 매일 정성껏 기도 드리기, 영을 느꼈던 때 떠올리기 등이 포함됩니다. 영이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 성신의 파스함을 느끼고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에는 해답과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가 아는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타니 에이치, 20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우리들 공간에 참여하려면 이메일로 여러분의 글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세요.



신호등 앞에서의 기적

그는 스쿠터에 탄 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이야기할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다.

벤자민 헤이포드

동 반자인 플랫폼 장로와 함께 대만 타이중 거리에 있는 시장을 걸어가다가 큰 교차로에서 멈춰 빨간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걸음을 멈추자마자 뒤쪽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스쿠터 몇 대가 우리 옆에 서길래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또렷한 영감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어떤 음성이나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왼쪽으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는 남자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와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나는 서둘렀다. 실제로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밀며 내 발을 옮겨놓는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오늘 하루가 즐거우신가요?”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마음이 철렁했다. 그 남자가 그냥 가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에게 아직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몰몬경에 대해 말하지도 못했는데……. 아직 교회 이름조차 알려주지 못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지만 그 남자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길가로 자리를 옮겨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따랐다. 플랫폼 장로와 나는 길가에서 그에게 교회 이름을 알려 주고 그 외에도 많은 말을 그와 나누었다.

몇 주가 지나서 이름이 수 맹웨이인 그 남자와 두 아들과 두 딸은 침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았다.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 열심히 노력한다면 때때로 기적을 경험하는 특권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눈에 기이하지 아니하냐?”(몰몬서 9:15~16)라고 말했다. 기적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선교사와 교회 회원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나온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 그분은 여러분을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거나 그들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메시지에 따라 기꺼이 행동할 것이다.”1 플랫폼 장로와 내가 바로 그 시각에, 그 신호등 앞에서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신다. 필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복된 복음을 알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수 맹웨이가 인생에서 겪고 있던 시련과 어려움을 염려하셨다. 주님께서는 수 맹웨이가 최근에 실직했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 맹웨이 집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다.

수 맹웨이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큰 평안을 얻었으며,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또한 더 큰 행복과 인생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으로, 인생에 불어 닥치는 도전에 맞설 힘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선함을 발견하고 그 점에 대해 더 알고자 할 것이다. 성신을 느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로 행동하고자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대만에 있는 수 멩웨이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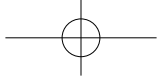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인도를 간구하며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된 복음을 알리려고 준비하고 계신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방법으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따르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 알게 된 소중한 진리를 나누기 위해 입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놀라운 기회가 뒤따를 것이다.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55~156쪽.

삽화: 마이클 파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준비하고

오세요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농구는 로저 엔리케 벨라스퀘즈 파레데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하나이다. 경기장에서는 그를 코키라고 부른다. 경기 종료 시각이 다가오고 경기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이 이름이 훨씬 부르기 좋기 때문이다.

페루 푸노 중앙 스테이크 빅토리아 와드 회원인 코키는 17세 미만 소년들로 구성되어 페루 푸노 지역 교회 회원들에게 후원을 받는 지역 대표팀, Benson Jazz[벤슨 재즈]에서 스타팅 포워드(골대 근처에서 활약하는 선발 선수-웁긴이)로 뛰는 코키는 팀은 지난 두 시즌에서 모두 무패 행진을 하며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고, 두 차례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코키는 팀에서 활약하며 농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세미나리를 가지 있게 여기는 법도 배웠다.

“세미나리와 농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코키는 씩씩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둘 다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농담은 여기까지이다. 코키는 그렇게 열광하는 농구와 복음 생활 사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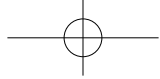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고, 배운 내용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구는 복음 생활과 비슷하다.

코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코키는 자신의 코치가 훌륭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있다 하더라도 코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덧붙여 말한다. 세미나리도 마찬가지이다.

“농구 코치님과 세미나리 선생님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분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는 늘 제자리 걸음만 할 거예요.”



.. **연** 마는 백성들이 주님께 기울이는
 ..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혹은 주님의
 ..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 말씀을 실천하는
 .. 정도에 따라)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 말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 못하기까지 이르게 되리니"(엢마서
 .. 1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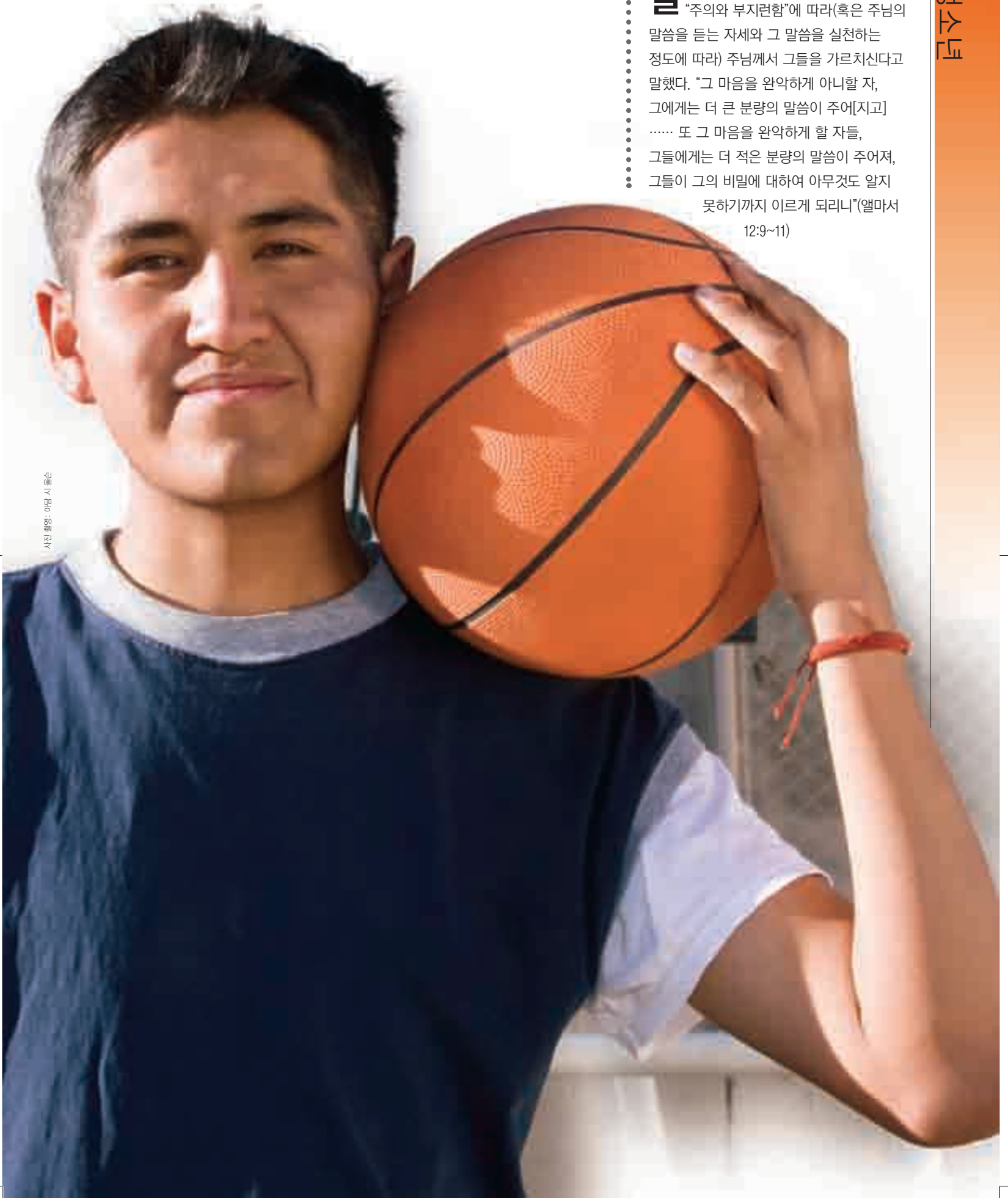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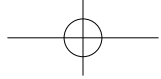


사진 촬영: 이범 시 올슨



코치는 더 나은 선수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 예를 들면 슛을 쓰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교회 교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요.” 코키가 말한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교사들은 학생이 인생에 밀려오는 난관을 헤치고 성공을 거두도록 돕는다. “교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며 유혹에 맞서도록 우리를 강화합니다.”

코키는 농구 연습이나 세미나리나 교회에 참석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농구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코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운 대로 실천하라

코키는 코치가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말대로 실천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코키는 배우는 과정에서 실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코치가 슛을 쓰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시범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말대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배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기도도 같은 방법으로 배웠어요.” 하고 코키가 말했다. 코키는 개인 기도를 꾸준히 하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본 후에야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원리를 실행에 옮길 때 성신은 그 원리가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코키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 배운 원리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코키는 코치가 슛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배운 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제 코키는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연습해야 한다.

근면이란 말은 반대에 부딪쳐도 헌신적으로, 끈기 있게 배운 내용을 실행한다는 뜻이다.

“저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요. 훈련을 그만두면 기술이 녹슬고 말 거예요.”

이것은 코키가 선배 선수들과 격렬한 즉석 경기를 펼치다가 코뼈가 부러져 한동안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다.

“연습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할 뿐더러 퇴보하게 돼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는 내용에 집중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포기하지 않는다

코키의 동료 선수들은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운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배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습했다.

선수들은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몹시 낙담하게 된다는 사실도 배웠다. 코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열심히 노력했어요. 또 한 번 우승을 놓치자 몹시 아쉬웠죠.”

한순간에 완벽해지리란 보장은 없지만 선수들 사전에 포기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 코키는 노력에는 진보와 성장 등 많은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와드 선교사로 봉사하는 코키는 부지런한 생활을 할 때 받는 보상을 경기장 밖에서도 경험했다. 코키는 한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와드 청남 두 명이 흥미를 느끼도록 돕기 위해 영화 감상의 날, 야영, 운동 모임을 계획하는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우리가 데리러 가지 않으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요. 시간이 조금 걸렸고 여러 번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나온답니다.”

코키는 “상을 얻기 위해”(모사이사서 4:27)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친 베냐민 왕의 말에 담긴 참 뜻을 농구, 세미나리, 교회 봉사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경기장 안과 밖 모두에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점도 배우고 있다. ■



굳게 붙드십시오



“쇠막대를 굳게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앤 엠 덩,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굳게 붙드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0쪽.



충실한 소녀 에머

어른이 되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가 된 충실한 소녀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마크 스타커
교회 역사부



새끼 양들을 지켜보고, 큰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큰 양동이에 단풍나무 수액을 받는 모습도

되었습니다. 에머가 기도하는 동안 마침 아버지는 사냥을 하러 숲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주님을 믿는 아버지의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에머는 자라면서 키가 크고 영특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재주도 뛰어났습니다. 에머가 스물한 살이 되자 조셉 스미스라는 근면하고 총명한 청년이 헤일 가족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에머 헤일은 성품이 훌륭하고 재치 있으며 덕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에머와 조셉이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에머 헤일은 1804년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에머는 농장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여덟 남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몇몇 삼촌과 숙모, 사촌들도 이웃에 함께 살았습니다.

에머 헤일 가족의 농장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둑을 따라 난

아름다운 계곡에 있었습니다. 에머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기도 하고, 뛰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액을 끓여 설탕을 만드는 일도 도왔습니다.

에머는 아기였을 때 기독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소녀 시절에는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에머는 여덟 살 무렵의 어느 날, 기도를 하러 숲에 들어갔습니다. 에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부족한 아버지가 걱정이



원문 삽화: 줄리 로저스, 일러스트: 마틴 스톨링, 컷아웃: 줄리 로저스, 옷을 수 있는 시간, 리스 레인 스톨링,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쿠퍼와 같은 것은 조셉의 아내, 포베라 디 매럿 © 1897, 에머의 친양자, 리스 레인 스톨링,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그리는 무엇을 받을지나, 리스 레인 스톨링,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에머 스미스, 부활절은 어린 사아도이 교가 © 1866, 프. 성호부초의 조역, 데일 할로우튼 © 프. 사인 헬링, 제노 에이틀러.
한미동으로, 리스 레인 스톨링,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어른이 된 어머니

어머니가 어른이 되어서 한 몇 가지 중요한 일과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에 해당하는 번호를 알맞은 그림에 적어 넣으세요.

1. 조셉이 모로나이에게 금판을

받으러 쿠모라 산에 갔을 때, 조셉과 함께 간 어머니는 마차에서 기다렸습니다.

2. 조셉이 금판을 번역할 때 처음에는 어머니가 기록을 맡았습니다. 조셉은 금판을 번역하여 말로 내용을 불러 주며 어머니에게 그것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3. 어머니는 교회의 첫 번째 찬송가책에 실을 찬송가를 수집했습니다.

4. 어머니는 나무에서 상호부조회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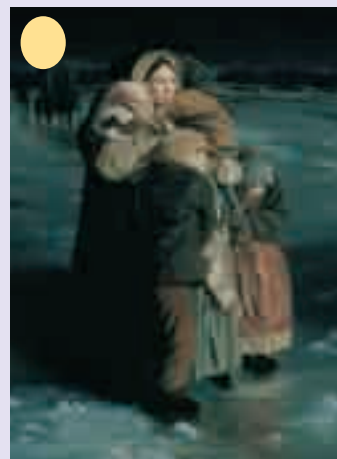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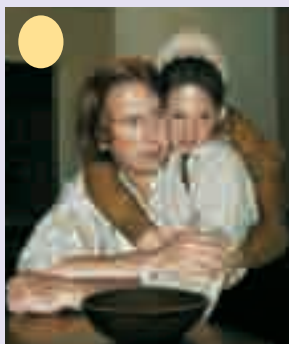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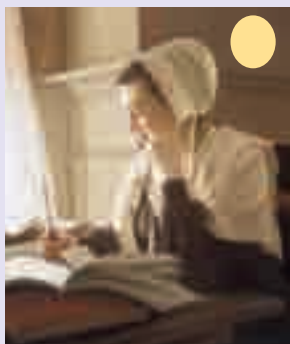
5. 어머니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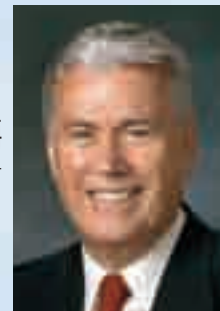
6. 교회 회원들이 미주리 주에 있는

집에서 내쫓겼을 때,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조셉이 번역한 성경 원고를 보자기 두 개에 싸서 허리에 묶어 옮겼습니다.

7. 어머니는 입양한 자녀 두 명을 포함하여 모두 열한 자녀를 둔 사랑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들 중 다섯 자녀만 살아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8. 어머니는 남편 조셉이 살아 있는 내내 그를 사랑했으며, 조셉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열 한 살 때, 저희 가족은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저는 세탁물을 배달했습니다. 저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빨간 자전거들을 보면서 그런 자전거로 세탁물을 배달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필요한 것은 세탁물 수레를 끌 튼튼한 자전거였습니다. 저는 등교 시간 전과 방과 후에 무거운 세탁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몹시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열심히 일해야 했으며, 저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일을

하면서 받는 축복이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는 폐질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훗날 공군에 입대했을 때, 의사들은 제 폐에서 반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느라 힘들게 자전거를 끌고 다닌 덕분에 병이 저절로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도 단련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병이 저절로 치유되었으며, 제가 신체 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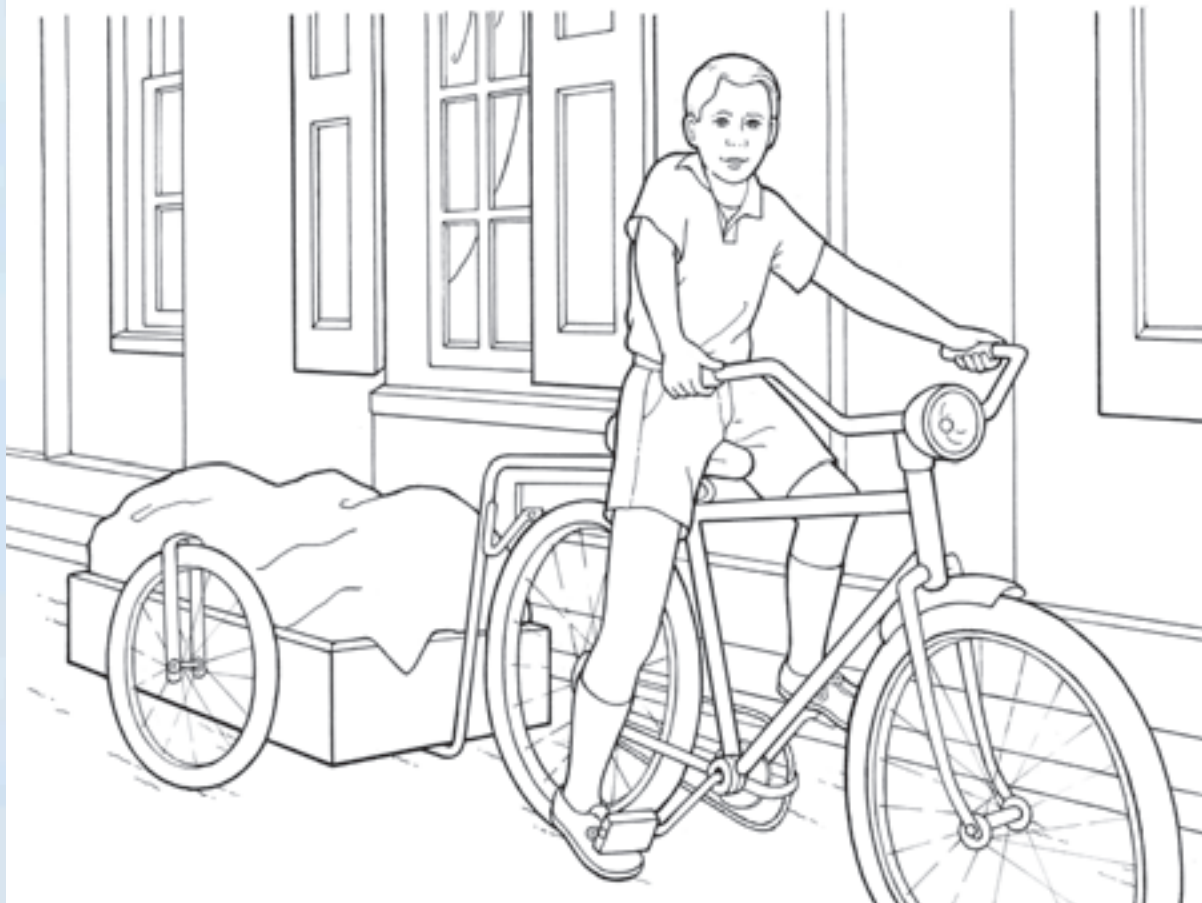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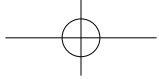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저는 조종사가 되어 전 세계를 비행했습니다. 별과 구름과 풍경을

내다보는 일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색다른 문화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어느 나라에 살고 어떤 풍습을 따르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것이든, 살아 있는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든, 교회 잡지에서 읽거나 연차 대회에서 듣는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친구가 친구에게”,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 2~4쪽에서 발췌.



원작 삽화: 데이비드 미들; 오른쪽 삽화: 배스 린 휴터커



가족을 도와주세요

우 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어린 시절에 가족들이 돈을 버는 일을 돕기 위해 자전거로 세탁물을 날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 그림을 색칠해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가족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그려 보세요.

“Ang ebanghelyo ay para sa lahat!”

“L’Evangile est pour tout le monde!”

“O evangelho é para todos!”

“The gospel is for everyone!”



프랑스(프랑스어)



호주(영어)



필리핀(타갈로그어)



브라질(포르투갈어)

여러 언어

우 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어린 시절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될 만큼 튼튼하고 건강해지셨습니다. 회장님은 여러 나라를 비행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들과 만나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모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와 그 어린이가 사용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말풍선을 연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요

산드라 태너, 크리스티나 프랑코

우리는 성신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기도할 때나 경전을

읽을 때, 혹은 어린이 노래를 부를 때 느끼나요? 성찬을 취할 때 구주의 사랑을 느끼나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평화로워지나요? 구주의 사랑을 느낄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번 달 성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여러분이 아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경전 일지에 적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2010년 9월 경전 일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 암송합니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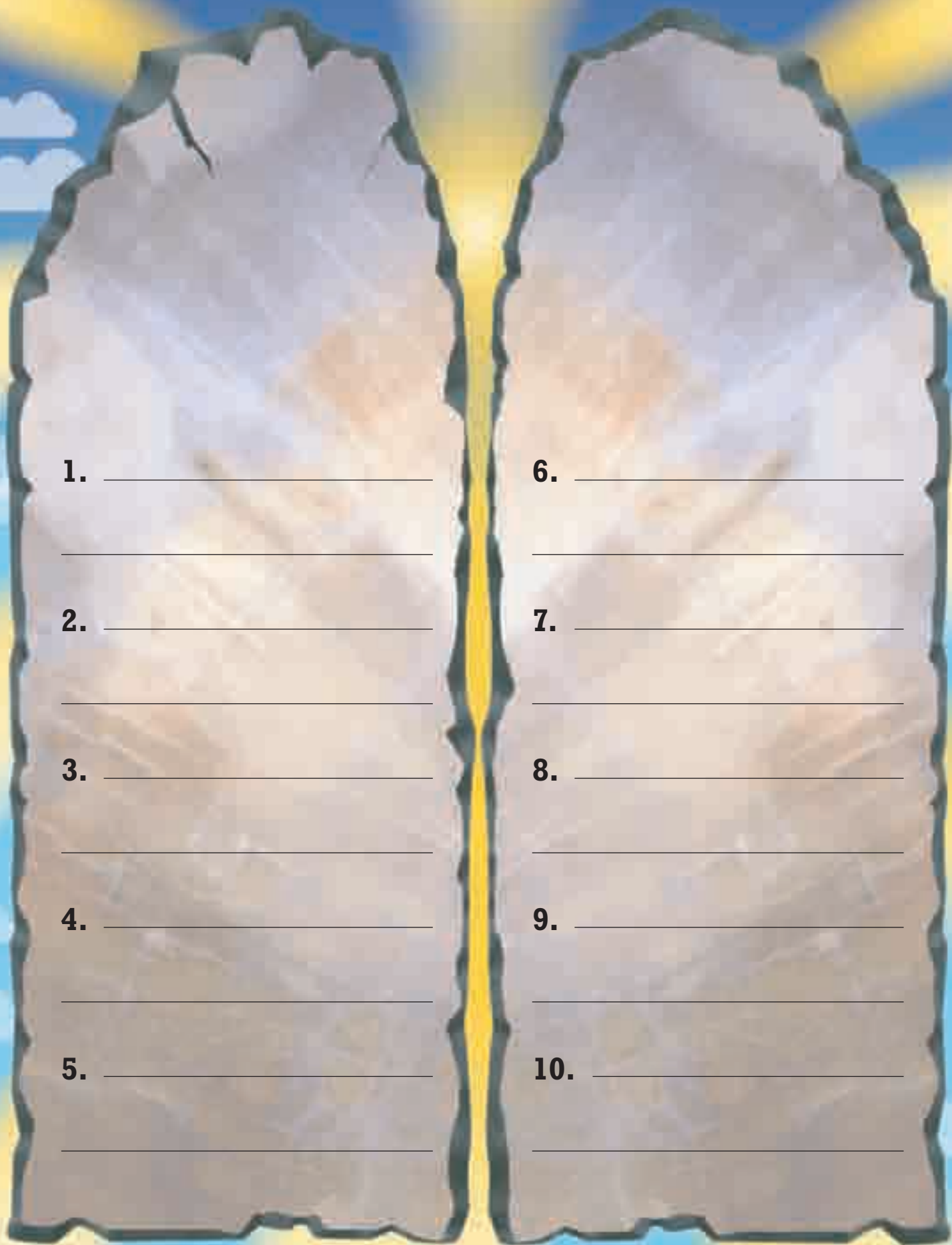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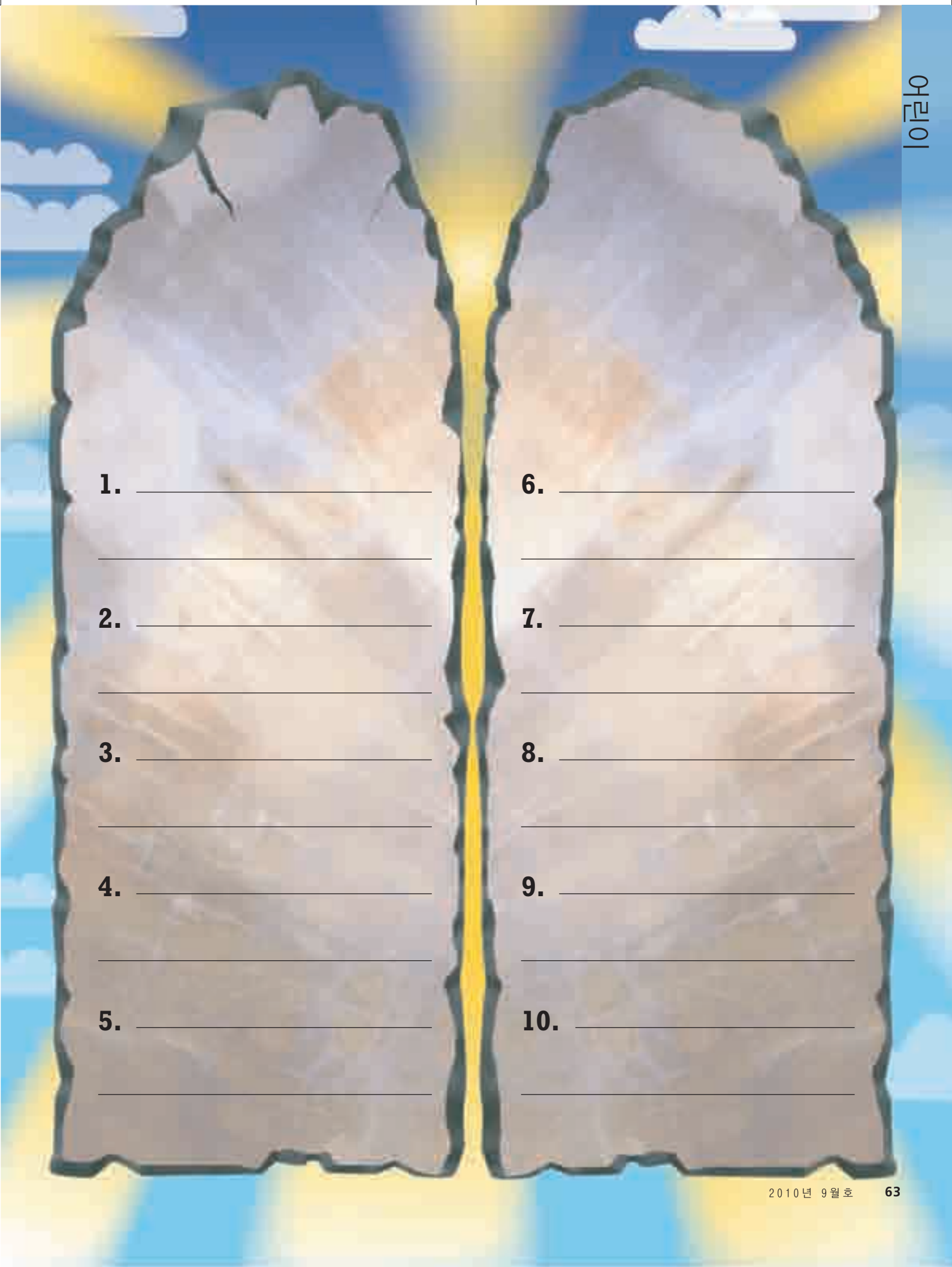
- 다른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외우도록 돕습니다.
-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17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은 다음 각 계명을 설명하는 그림이나 몇 개의 낱말을 63쪽에 있는 돌에 채워 넣으세요. 돌아오는 주에 그 중 한 가지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 부모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성신을 느낀 경험과 구주의 사랑을 느낀 경험을 들려 달라고 하세요.
- 구주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일지에 적으세요.

여러분이 한 일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한 일을 일지에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



원본 삽화: 제임스 존슨, 오른쪽 삽화: 스포트 그리어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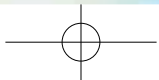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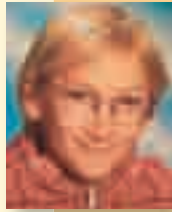
10. _____





우리들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무척 기쁩니다. 교회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해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엘리사 엠, 9세, 필리핀



침례를 받을 때 간증이 커졌습니다. 성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신은 제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 말입니다. 물론경과 성경은 참됩니다.

루카스 디, 11세, 독일



킬린 시, 11세, 코스타리카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농구를 하는데 한 친구가 다른 아이를 겨냥해서 농구공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를 말리며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 했지만 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독님께서는 덕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덕이 무엇인지, 제가 덕을 갖춘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학교 친구들이 사이 좋게 지내도록 돕고 약한 사람을 도우려 한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하시며 제 성품이 덕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에스, 10세, 대만



몬슨 회장님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무척 아끼는 신발을 아주 가난하게 사는 여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메이엔 에스, 10세, 브라질



원작: 농구공 사진: © GETTY IMAGES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 주제에
관한 몇 가지 견해를
나누었다.



신권 정원회란 무엇입니까?

경 전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필요한 신권 정원회와 그에 따른 의무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권 정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하고, 사명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신권 정원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41~42쪽에서
발췌.



신권 정원회나 그룹에서 공과를 배울 때, 회원들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고]”(모로나이서 6:4)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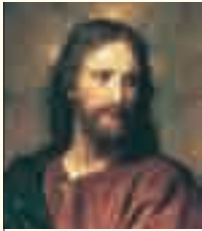


정원회는 봉사 조직입니다.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 정원회는 봉사하는
가운데 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권 성임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정원회
회원입니다. 정원회를 구성할 형제들이
부족한 곳에 사는 분들도 나중에 정원회로
조직될 신권 그룹의 회원입니다.





충실한 다니엘을 구하신 여호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다니엘과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 고향에서 약 805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낙타로 닷새 이상을 여행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바벨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바벨이라고도 알려진 바벨론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옛터는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멀지 않습니다.

다이앤 엘 맹검

다니엘은 앞에 놓인 음식 접시와 포도주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들이 여호와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 소년 네 명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소년들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거나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열흘 후, 왕이 베푸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좋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매일 네 소년에게 씨앗과 곡물로 만든 **채식**을 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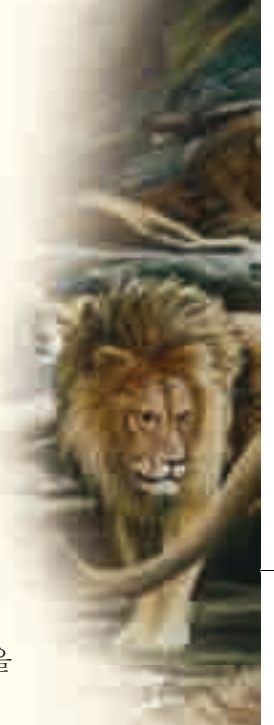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대신 물을 가져왔습니다. 열흘 후, 소년들은 다른 포로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제 좋은 왕이 준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성장하는 동안 여호와께서 지식과 지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왕궁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투심에 불탄 사람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왕을 설득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킨 모든 사람은 굶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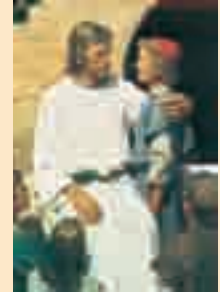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교리와 성약 89편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와 누구일까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오도록 도와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전서에서 여호와(Jehovah)는 주로 “여호와”(Lord; 한글 구약전서에서는 Lord가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음-옮긴이)로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베레렘에서 태어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졌습니다.



사자 동굴에 던져져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충실한 다니엘은 이 법을 알면서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며 다니엘 방 밖에서 엿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왕에게 쓴살갈이 달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지만 법은 지켜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고, 굴 입구를 막기 위해 커다란 돌이 놓였습니다.

왕은 밤새도록 걱정하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왕은 황급히 사자 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니엘,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다행히도 돌 너머에서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에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왕국 전체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께서 다니엘을 구하셨다! ■

이 이야기는
다니엘 1, 2,
6장에 나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13)

실화에 근거

소 피는 엄마를 도와 집을 청소했습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에 사는 소피의 가족에게 선교사들은 반가운 손님입니다. 엄마는 특별 요리인 타말레스(옥수수 반죽에 치즈나 고기 등을 넣고 옥수수 껍질로 싸서 찌낸 요리-웁긴이)와 밥과 고추를 곁들인 옥수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소피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2주 전, 크레이그 장로와 새로운 동반자인 젠슨 장로는 소피와 부모님과 오빠 둘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벌써부터 소피는 가족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소피는 부모님과 오빠들이 선교사들과 경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식탁 정리를 마치자 크레이그 장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귀환합니다.”

소피는 크레이그 장로가 그토록 일찍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렇그렁했습니다. 눈길을 돌려보니 오빠들도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장로도 몇 번 훌쩍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형제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하고 말하며 가방에서 선물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제님과 아드님들을 위한 거예요.”

아빠는 상자를 열고 안식일에 입는 흰 와이셔츠 여섯 벌을 꺼내셨습니다.

아빠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마침내 아빠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소피는 아빠 목소리에 한숨이 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와 오빠들에게는 흰 셔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아빠가 교회에 가실 때 경건하게 흰 셔츠를 입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향에 가면 셔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크레이그 장로가 말했습니다. “제발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전 드릴 게 없는 걸요.”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물문경을 가리키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다음날, 소피는 크레이그 장로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상의한 끝에, 세라피라 부르는 작은 직물 담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베를을 빌려 실 색깔을 고르고 매일 방과 후에 할 일을 마친 다음 담요를 짰습니다. 손가락을 잘못 움직여서 실수한 부분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바로잡은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세라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소피는 담요에 들어간 연갈색과 옅은 노란색을 크레이그 장로가 좋아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소피는 세라피를 갈색

포장지로 싸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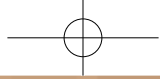
크레이그 장로가 소피 집을 방문한 마지막 날, 소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소피 자매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크레이그 장로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장로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하 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것과 ……
 신권 권세가 …… 다시 회복되었다는
 간증은 참으로 유례 없고 진귀한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0쪽.



모든 게 잘 될 거야

채드 이 퍼레스
교회 잡지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모사이야서 24:15)

실화에 근거

1. 새로운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 왔습니다. 엘리엇은 몹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전 친구들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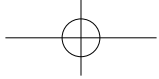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3. 쉬는 시간에 엘리엇은 함께 놀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놀자고 해야 할지 몰랐고, 운동장에서는 몇몇 남자아이들이 엘리엇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습니다. 엘리엇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2. 학교에 도착한 엘리엇은 낯선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엘리엇만 혼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화: 이담 코포드



4. 집으로 돌아온 엘리엇은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5. 저런,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은 어떠니?



6. 엘리엇은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조금 힘들었지만 서서히 함께 놀 친구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7. 엘리엇은 계속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엘리엇은 매일 함께 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항상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엇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새로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옳은 길을 선택하세요

케 빈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면 행복하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슬플 것입니다. 케빈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세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마다 착한 일을 하는 그림 옆에 있는 길을 선택해 주세요.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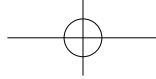
부모를 위한 제언

아이가 이 미로를 끝까지 잘 따라갈 경우,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준다. 봉사하고 옳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덜 심각하게 보이는가?

70~71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옳은 선택을 하고 잘 견디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원리에 대한 경전 속 예 중 하나는 모사이야서 24장 8~22절에 나온다. 엘마와 엠울론 이야기를 읽어 주거나 요약하여 들려주고, 엘마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롭게 생활했지만 그들의 짐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의롭게 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가?



심화: 이담 코포드



교회 소식

교회 인도주의 사업: 제자 직분 실천

히더 엘 스톡, 복지부
래리 힐러, 교회 잡지 기자

사 복음서에는 병들고 눈멀고 다리 저는 이들을 구주께서 고쳐 주신 기사들이 가득하다. 또한 경전 속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 그분처럼 되라고 권유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연민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고 고쳐 주고, 짐을 가볍게 해 주며 아픔과 고통을 덜어 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전 세계에서 교회의 인도주의 사업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 사업 자금은 주로 같은 소망을 품은 교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된다.

최근 수년 동안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교회 인도주의 사업으로 축복을 받았다. 여러 오지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고, 걸을 수 없는 이들에게 기동력을 제공했으며, 시각 장애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죽어가는

구주를 따르려는 교회의 노력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래 지속되는 인도주의 원조도 포함되어 있다.

신생아들의 목숨을 구했으며, 질병을 예방하도록 백신을 접종하고, 농작물 수확량 및 영양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깨끗한 물

세계 여러 곳에서는 마시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관개용으로 쓸 물이 부족하다. 이런 물은 흔히 강이나 연못, 혹은 기생충과 질병으로 오염된 얕은 우물에서 한 번에 조금씩 길어 올려 쓸 수밖에 없다. 많은 성인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더욱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대신 물을 얻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하는 실정이다.

교회의 깨끗한 물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안전한 물 공급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생 시설도 만들고 기본 위생을 실천하는 법도 가르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하수가 함유된 대수층에 시추공을 넣어 관 새 우물이나 직접 우물을 파 내부 설비를 하고 덮개를 단 우물, 또는 마을까지 수로관으로 연결된 샘물 등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지역 도급업자들은 물을 공급받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지역 상수도 위원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되도록 설계된 수도 시설을 관리한다. 깨끗한 물 사업 책임자인 매트 힙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상 우리 프로젝트는 수도 시설 자체보다 사람들을 더 중시합니다. 모든 일은 개인과 지역 사회가 자립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는 2002년부터 54개국에서 프로젝트 235건을 실시하여 5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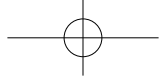
기동력 기증

혼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진 출처: 하워드 엠 콜라트

74 리아 후니



휠체어, 보행기 또는 인공수족을 주는 것은 날개를 달아 주는 것과 같아서, 그 덕분에 그들은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사귀고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

불행히도 세계 도처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 장비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입할 능력이 없는 곳이 많다. 후기 성도 자선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장벽을 제거해 준다. 휠체어 사업 팀에서는 지역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가능한 한 지역 제조업체에서 휠체어를 구입함으로써 수혜자가 각자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장비를 갖도록 한다. 또한 휠체어를 받는 이들이 후속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장비 관리 부품과 기술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지난 9년 동안 30만 명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기동력을 얻었다.

시력 치료

오늘날 세상에서 일부 시각 장애는 의료적 처치로 치료되고 교정될 수 있으며, 약한 시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교회의 시력 치료 사업부에서는 시력 관리를 개선하고, 장비 제공 및 단기 전문가를 통한 훈련으로 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한다. 이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전문가들에게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난 후에도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다. 한 예로, 몽골에서는 시력 치료 사업을 통해 훈련을 받은 지역 의료진이 현재 무료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생아 소생술

아기의 첫 울음은 어머니에게 음악과도 같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울음 소리와 간호사나 조산사의 기쁜 목소리 대신 아기의 기도가 막혀 침묵만 흐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슬픈 일도 없다. 저렴한 분비물 흡인기와 검증된 구급 호흡술이 있다면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들은 죽을 수도 있는 신생아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신생아 소생술 훈련 사업부에서는 단기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들에게 NRT(신생아 소생술 훈련)를 훈련시킨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출산 종사자들에게 이 훈련을 전수해야 한다.

훈련자를 훈련시키는 이 방법을 통해 생명 구조 지식과 물자가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을 넘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의료계는 개선되고, 출산 종사자들은 신생아가 호흡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지켜보지 않아도 되며, 가족들은 축복을 받는다. 후기 성도 자선단체의 국제 보건 책임자인 리즈 호웰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실로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 구조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과 힘

선진국 어린이들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질병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창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홍역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¹

기아와 영양 실조도 만연하여 어린이 신체 및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

사업 내용	프로젝트 건수	국가	수혜자
깨끗한 물(2002년 이후)	235건	54개국	5,271,607명
휠체어(2001년 이후)	626건	106개국	302,236명
시력 관리(2003년 이후)	72건	41개국	214,545명 (훈련 또는 치료)
신생아 소생술 훈련(2003년 이후)	145건	70개국	112,999명 (훈련 또는 치료)



정신 발달이 저해되고 홍역과 같은 질병 감염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영양 부족 및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으로 매년 어린이들이 5백만 명 이상 목숨을 잃는다.”²고 한다.

2003년에 교회에서는 국제홍역퇴치단체(the international Measles Initiative and Partnership)에 가입하여,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회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지역 예방 접종 캠페인을 조직하고 촉진, 지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2003년 이후로 대략 교회 회원 5만 6천 명이 32개국에서 60만 시간 이상 봉사를 해 왔으며, 홍역퇴치단체는 2001년부터 6억 명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예방 접종을 했다. 전 세계에서 홍역 사망자는 2000년에 7십 5만 명에서 2007년에는 19만 7천 명으로 감소되었다.³

교회 인도주의 사업에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늘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식량 사업을 통해 시골과 도시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채소 재배법과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작은 동물을 사육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맞서고 있다. 이런 기술 대부분은 벤슨 연구소가 수년간 실시한 연구에 근거한다. 벤슨 연구소는 2007년에 후기 성도 자선단체 산하 기관이 되었다.

식량 사업 책임자인 웨이드 스페리는 사람들의 신체 건강이 개선되면 정서적, 영적 건강도 함께 개선된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궁핍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본능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인도주의 사업은 교회 회원들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구주의 권고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 ■

주

1. 세계보건기구, Fact Sheet no. 286,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86/en/> 참조.
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dernourishment around the World 2004,” http://www.fao.org/docrep/007/y5650e/y5650e03.htm#P26_3460.
3. “홍역 퇴치 단체를 돕는 회원들”, *리아호나*, 2010년 2월호, 76쪽; *Ensign*, 2010년 1월호, 77쪽 참조.

몰몬 태버넬 합창단, 첫 녹음 기념일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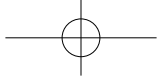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리처드 이 텔리 이세
교회 역사 기록자 보조

100년 전 9월, 템플스퀘어 태버넬에서는 몰몬 태버넬 합창단과 오르간 연주를 처음으로 녹음하는 작업이 있었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합창단은 역사가 100년 된 녹음 음반들에서 선곡하여 세 장짜리 디스크로 구성된 *100: Celebrating a Century of Recording Excellence*(녹음 100년 기념 우수 음반)를 내놓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몬 태버넬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합창단입니다.”라고 말한

저명한 음악감독, 유진 오르먼디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태버넬 합창단은 19세기 중엽에 결성된 후 처음 몇 십 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그 연주를 들어 본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축음기가 발명되고 32년 후인 1909년에 컬럼비아 축음기 회사가 합창단과 오르간의 웅장한 소리를 담아내는 시도에 동의했다. 당시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따르는 어려운 일이었다. 독주 녹음은 만족할 만한 음질이 나왔지만 큰 단체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녹음하는 일은 대체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다.²

1910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 3일간 작업을 감독한 녹음기사 알렉산더 하우스만은 “합창단 뒤쪽에 위치한 좌석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연결된 줄에” 긴 녹음 나팔 두 개를 매달았는데, “번쩍거리는 종처럼 생긴 이 두 나팔이 하나는 소프라노와 알토를, 다른 하나는 테너와 베이스 소리를 담아냈다.”³

Salt Lake Herald(솔트레이크 헤럴드)는 하우스만 씨가 녹음을 25차례나 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합창곡 12곡, 태버내클 오르간 주자인 존 케이 맥클린 연주곡 10곡, 맥클린 형제와 바이올린 주자인 윌라드 이 웨이에 연주곡 2곡, 전 태버내클 오르간 주자인 조셉 제이 대인스 일세 연주곡 1곡이다.⁴

완성된 음반이 모두 몇 장이나 팔렸고 얼마나 널리 배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중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미국 캔자스 주 라니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제이 에이 버논 장로는 1911년 2월호 *Improvement Era*(임프루브먼트 이라)에 실린 편지에 이렇게 썼다. “최근에 우리는 태버내클 합창단이 부른 노래와 오르간 연주가 들어 있는 축음기 레코드 판을 몇 장 받았습시다. 사람들은 그 연주를 들으면서 호기심이 커졌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원리를 설명할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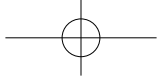
1910년, 원시 단계인 그 첫 번째 녹음 이후, 태버내클 합창단은 175개가 넘는 앨범을 발표했고 그 중 두 앨범은 각각 백만 장이 넘게 팔렸다. 합창단이 내놓은 음반 중 하나는 1959년도 미국 그래미 상을 받았으며, 다른 앨범은 2007년에 그래미 상 후보 두 부문에 올랐다. 그러나 상이나 명예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합창단 음악이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다. 지난 세기에 걸쳐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합창단이 녹음한 음반은 191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 ■

주

1. Charles Jeffrey Calman, *The Mormon Tabernacle Choir*, 178쪽.
2. “Big Choir Sings into Phonograph,” *Deseret Evening News*, 1910년 9월 2일, 5쪽 참조.
3. “Music and Musicians,” *Deseret Evening News*, 1910년 9월 3일, 15쪽.
4. “Last Records Secured,” *Salt Lake Herald-Republican*, 1910년 9월 3일, 14면 참조.
5. “Messages from the Missions,” *Improvement Era*, 1911년 2월, 354쪽.

합창단 녹음 이정표

- 1910년:** 첫 음향녹음
- 1925년:** 첫 전기녹음
- 1949~1950년:** 첫 번째 두 앨범 발표. 한 앨범은 한 면에 한 곡 또는 두 곡이 실린 각 음반을 함께 묶어서 포장한 것이었다
- 1959년:** “전승가” 녹음, 그래미 상을 탄 *The Lord’s Prayer* 앨범에 포함.
- 1963년:** 1959년도 앨범 *The Lord’s Prayer*와 *Messiah*가 50만 장 넘게 팔리면서 미국에서 골드 레코드 획득.
- 1979년:** 1963년도 앨범 *The Joy of Christmas*가 미국에서 골드 레코드 획득.
- 1981년:** 첫 디지털 녹음, *The Power and the Glory* 발표.
- 1985년:** 1965년도 앨범 *The Mormon Tabernacle Choir Sings Christmas Carols*와 1970년도 앨범 *Joy to the World*가 미국 골드 레코드 획득.
- 1987년:** *Christmas Sampler*, 오페라 가수인 셸리 베렛이 주연한 뮤지컬 특집으로 지역 에미상 수상.
- 1991년:** 합창단과 다른 가수들이 출연한 1989년도 홀마크 앨범 *Carols of Christmas*가 백만 장이 넘게 팔리면서 미국에서 플래티넘 레코드 획득.
- 1993년:** 합창단과 다른 가수들이 출연한 1992년도 홀마크 앨범 *Celebrate Christmas!*가 미국에서 플래티넘 레코드 획득.
- 2003년:** 합창단이 자체적으로 음반 회사 창설, 지금까지 약 30곡 발표.
- 2007년:** *Spirit of the Season* 발표. 노르웨이 가수 시셀이 출연한 이 성탄절 앨범은 Billboard(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랐으며, 그래미 상 후보 두 부문에도 올랐음. ■



교회 이모저모

루마니아 회원들, 20주년 축하

경전에 나오는 역사 속 인물 차림을 한 루마니아 교회 회원들은 회원들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구주, 배도, 조셉 스미스, 몰몬경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 촬영: 티오도로 두미트라세

복음 전파를 위한 루마니아 헌납 20주년 기념 행사 중 한 부분이었다.

2010년 2월에 열린 축하 행사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1990년에 그 땅을 헌납했던 장소에 모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헌납 기도에서 발췌한 인용구는 축하 행사 주제인 “루마니아: 이웃 국가들의 햇불”의 기초가 되었다.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지방부 회장인 바실레 도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행사 중에 우리는 영을 느꼈으며, 회원들이 이 위대한 사업에 속하게 되어 행복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우리가 시온의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지방부 회원들이 20년 전, 루마니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된 언덕을 오르고 있다.

스테이크로 발전하여 ‘이웃 국가의 햇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사 후에 회원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몰몬경을 나누어 주었다. ■

마다가스카르 상을 수상한 부부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안드라이나리보에서 봉사하는 한 부부 선교사가 최근 인도주의 봉사료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그 나라 최고 훈장을 받았다.

미국 유타 주 프루트 하이츠에서 온 로버트 버드 장로와 수전 버드 자매는 선교 사업을 하는 18개월 동안 약 10만 명에게 식수 공급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했다.

안드라이나리보 수자원관리부 니리 란토 헤리 안드리아마하조 장관은 이 부부 선교사에게 영예의 메달을 수여하고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들이 마다가스카르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선교사들에게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전했다. ■

애독자 편지

게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증거

교회에 게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리아호나*입니다. 지부 회장인 저는 우리 지부의 보조 조직에 대해 기도드렸고 그 응답을 *리아호나*에서 찾았습니다. *리아호나*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몰몬경과 같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울 수 있으며, 교회의 친구들은 교회 조직과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비회원 친구들이 이 놀라운 잡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 신청권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르멜 다비 키아카카, 코트디부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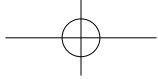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사랑의 사업

저는 *리아호나*가 왜 청소년과 어린이, 청년 성인들에게 집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리아호나*를 읽어 왔으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리아호나*는 정말 제게 소중한 것입니다. 독신 성인이 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주디스 차베즈 베가, 페루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 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세계 단신

교회 주요 행사 방송

6개월 간 일어난 교회 주요 행사를 요약하는 자체 제작 반연차 뉴스 프로그램인 *The World Report*(더 월드 리포트)가 연차 대회 기간인 2010년 10월 2일 토요일과 10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 사이에 같은 위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언어로 방송된다. 현지 언어로 방송되지 않는 곳에서는 영어로 방송된다. 더 월드 리포트는 이 외에도 배부 센터에서 DVD로, 그리고 인터넷 lds.org/videos와 newsroom.lds.org에서 볼 수 있다.

교회 인터넷 방송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다양한 교회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 교회 방송 사이트인 lds.org/broadcast에서 방문자들은 연차 대회, 상호부조회 총회, 청년 총회,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등을 포함한 행사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영어로만 검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오디오 자료와 몇 가지 동영상 자료는 여러 언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가족 역사 교실

가족 역사 도서관은 인터넷 사이트 familysearch.org(Free Online Classes를 클릭한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역사 조사 반 8개를 만들었다. 동영상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진 이 반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가족 역사 조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여러 개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다. 7개 반은 영어로, 1개 반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언어들도 추가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카트만두

인도 뉴델리 선교부의 카트만두 지부에 소속된 청년들이 2010년 4월, 첫 번째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청년 5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참석했고, 지부 회장단, 청년 회장, 청소년 지도자들이 영감 어린 권고를 전했다. 청년들은 가족을 돕는 목표를 달성하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간증을 쌓고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 실린 몇몇 기사들은 선교 사업을 다룬다. 가정의 밤을 가족 선교사 계획을 짜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가족이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포함시킨다. 또한 선교 사업에 대한 최근 연차 대회 말씀(토마스 에스 몬슨,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4쪽;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거룩한 선교사 부름”,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1쪽)을 토론할 수 있다.



“나만의 물문경”, 6쪽: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 가족이 경전 속에 나오는 의로운 남자와 여자처럼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좋아하는 성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나 [가족의 이름]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니파이전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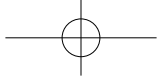
“그리스도를 가정으로 맞이하여”, 14쪽: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암기할 목표를 정하고 가족이 “항상 그를 기억”(모로나이서 4:3)하도록 구주의 그림들을 모은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가정의 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자리잡기까지 너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첫 번째 월요일에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간단히 했다. 자료라고는 경전 한 세트가 전부였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에게 나타나신 기사가 나오는 제3니파이를 읽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장소와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께서 니파이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둘러 앉아 무릎을 꿇고 가족기도를 했다. 이사하느라 기진맥진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의지할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깊은 평안을 느꼈다. 우리는 모든 일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되어 갈 것임을 알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남윤정, 미국 텍사스 ■



수족관에서 얻은 교훈

미네르바 지 하르크네스

어느 날, 아홉 살 난 내 딸에게 수족관이 있다는 것을 안 감독단 중 한 분이 물고기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지를 물었다. 휴가를 갈 예정이라 그 가족의 수족관을 비워야 했다. 우리는 곧바로 그 제의를 수락했다. 딸은 물고기들 중에 구피 한 마리가 새끼를 배서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오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온 딸은 평소처럼 수족관으로 가서 물고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놀고 있는지 살폈다. 놀랍게도 새로 태어난 조그마한 물고기 네 마리가 눈에 띄었다. 엄마 구피가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것이다. 딸은 아기 물고기들을 공격적인 큰 물고기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안전한 상자에 신속히 옮겨 담았다. 그러나 흥분으로 들뜬 와중에 아기 구피 한 마리가 사라졌다. 실망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린 딸은 수족관 바닥에 깔린 작은 조약돌 틈에서 아기 물고기를 찾아냈다. 딸은 안전한 상자로 옮기기 위해 그물망으로 아기 물고기를 떠내려고 했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다른 작은 구피들은 모두 잡혔고, 안전한 상자에는 수많은 아기 물고기들이 가득한데 딸은 여전히 돌 틈 사이에 빠져 있는 그 한 마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딸은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곧바로 상자로 옮기려고 준비 태세를 하고 앉아 있었다. 약 네 시간 동안이나 수족관 옆에 앉아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저녁식사도 마다했다.

딸을 지켜보면서 친숙하고 상냥한 누군가가 떠올랐다. 나는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선한 목자(누가복음 15:3~8; 요한복음 10:11~14 참조)를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영적으로 아플 때 그



조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걱정하는 딸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분에게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며, 절대 하찮은 존재도 아니다.

느낌이 어떤지 잘 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팔을 펼치고 우리 곁에 계시며, 기꺼이 우리를 구조하고 강하게 하고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우리가 늘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낮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복리와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대해 깊이 염려하신다. 그분들은 무한한 사랑으로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관한 책임을 주시며, 우리가 그분들의 팔에서 안전과 평안을 얻도록 충분한 힘과 신앙을 쌓기를 기다리신다.

아기 구피에 대한 딸의 염려는 그날 늦게야 결실을 거두었다. 오랜 시간 끈질기게 기다리며 염원한 뒤에야 그 조그마한 물고기는 마침내 몸을 뒤틀어서 조약돌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안락하고 안전한 상자로 옮겼다. 그 모습은 사랑의 위력을 알려 주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